



환경보건연구원
유리모듈

통영리랙클센터하리통영리유발전기심포지엄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

일시 : 2011.7.6(수) 10:00~17:0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



행사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참 여 인 사
개 회 식	10:00 ~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개회사 : 현인택 통일부장관 ● 축 사 : 이상우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사 회 : 임병철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제1주제 사회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	10:3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허 숙 교수(경인교대) ● 발 표 : 김영수 교수(서강대) 이상근 회장(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 토 론 : 안성호 교수(충북대) 허문영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신희선 교수(숙명여대)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주재 오찬 (12:00~13:30)

※오찬이 제공됩니다.

제2주제 학교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	13:3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한만길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 발 표 : 차우규 교수(한국교원대) 송두록 교사(서울고) ● 토 론 : 이인재 교수(서울교대) 류정섭 과장(교과부) 이미경 교수(통일교육원)
제3주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15:2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고성준 교수(제주대) ● 발 표 : 박현선 교수(고려대) 오한샘 부장(EBS) ● 토 론 : 박찬석 교수(공주교대) 이태욱 교수(한국교원대) 김홍재(前 통일교육원장)

▶ 행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 ❑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의 역할과 활동제고 방안 1
- ❑ 사회통일교육의 사례와 개선 방향 21
- ❑ 토론내용 요약자료 43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 ❑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59
- ❑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89
- ❑ 토론내용 요약자료 111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 ❑ 교육대상별 적합한 콘텐츠 개발 방향 127
- ❑ 통일교육 콘텐츠 분석 및 제언 161
- ❑ 토론내용 요약자료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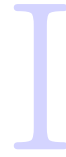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의 역할과 활동제고 방안

김 영 수
(서강대학교 교수)





기존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



이 글의 목적은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참여주체의 역할을 성찰하고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요청은 무엇인지, 무엇을 챙기고 관리해야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실시된 사회통일교육은 '다양함 속의 혼란'으로 표현할 정도로 제각기 설정한 목표와 현실 여건에 맞는 교육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강사가 얘기하는 내용이 통일교육의 전부로 여겨지기도 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의 방침과 계획만 수립하는데 비중을 두었을 뿐, 실제로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피드백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된 사회통일교육 과정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도 없었으며, 교육운영자가 연초에 계획대로만 수행하면 된다는 타성 속에서 오직 몇 명이 참가했느냐와 강의 제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뿐, 실제 교육된 내용에는 별 관심이나 지도가 없었다. 더구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정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강사 선정 방식으로 인해 사회통일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가르치는 문제가 제대로 점검되지도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다.

한편, 통일교육 행사를 위해 동원된 일반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 또는 강사의 방북 경험담 그리고 탈북자의 얘기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동원된 청중은 강의 내용보다는 행사 끝난 후 다과회가 있는지, 기념품으로 무엇을 주는지, 언제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 관심사였다. 또 지역차원 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기관장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표심을 의식한 주요 인사들의 축사, 격려사, 인사 등으로 사회통일교육은 주가 아닌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관례화 되어 왔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는 담당부서나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방안 없이 매년 상례적으로 실시되는 사회통일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사회통일 교육 강사 또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나 비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일선에서 진행되는 사회통일교육은 이렇게 가르치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표준 강의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제목에만 '통일'이 들어가면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

II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을 목표한 바와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즉,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즉, 현장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¹⁾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민주평통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사로서 겪은 체험, 종료 후 수거한 설문지 응답반응, 각 지역협의회 간사들의 반응, 민주평통 사무처 각 지역 담당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²⁾ 여기에 기존 사회통일교육 효과를 분석한 실태조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³⁾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남북어깨동무, 좋은벗들, 평화재단 열린아카데미와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흥사단통일아카데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의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⁴⁾

강의 수락·실행과정 및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통일교육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통일'이 들어가면 진부한 것 같고, 안 들어가면 위에서 뭐라 그러고 ... 강사님이 좋은 제목 하나 정해 주세요."

1) 이 발제문은 2010년 수행한 통일부 연구과제 『사회통일교육용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중에서 발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연구과제는 2010년 10월 통일교육협의회에서 『바른 사회통일교육 길잡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 연구과제 수행기간인 2010년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접 강의한 서울지역 20개 협의회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의반응, 충남지역 6개 협의회, 전남지역 2개 협의회, 부산·울산지역 4개 협의회 반응을 직접조사한 것이다.

3) 함인희·김영수 외,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 통일부, 2002); 한만길 외, 『각급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장희·김영수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계획』(서울: 통일부, 2001); 이우영,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단기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통일교육원 주최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세미나 발표문(1998.10.30).

4)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NGO단체의 실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 ② "사람 모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에 4강의를 몰아치니 마지막 시간엔 거의 다 가고 없어요. 강사님 양해해 주세요."
- ③ "아침 시간이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 업은 젊은 엄마가 거의 다예요. 반응이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 ④ "선거 때라 축사할 사람이 많아서 강의 시간이 줄어들어 미안합니다. 원래는 60분 강의를 부탁했는데, 30분만 해주세요."
- ⑤ "구청장이 출마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지나야 축사를 할 수 있으니, 60분 강의를 구청장 올 때까지 끌어 주세요. 90분 이상 하셔도 됩니다."
- ⑥ "강의 요약문을 보냈는데, 강의 듣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나요?" "강의 원고는 사무처에 보고하는 용으로 부탁한 거예요. 종이도 아끼고 나눠줘도 보지도 않으니 그냥 말로 해주세요."
- ⑦ "강의 원고가 너무 적어요. 책자를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니 적어도 A4 30페이지 정도 써주세요. 두툼해야 뭔가 한 것 같고요."
- ⑧ "통일교육 하면 지루해 하고 관심이 없어요. 제발 재미있게 해주세요."
- ⑨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 갖지 말아주세요. 다 가버려 썰렁하거든요. 60분 강의 두 강좌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주세요."
- ⑩ "여긴 군수가 민주당인데, 협의회장은 한나라당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강의하실 적에 참고하세요."
- ⑪ "지역색을 잘 고려해서 특정 인물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지난 번 강사는 참석자들이 강의 중에 항의해서 강의를 중단된 적 있어요."
- ⑫ "강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지난 강사는 왔다 갔다 한다고 시비가 붙어 강의 끝까지 못하고 갔어요."

- ⑭ "어떤 강사는 자기 논문을 쪽 읽어버리는 바람에 다들 즐기고 재미없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혼났어요.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영 아니었어요. 제발 재미 있게 해주세요."
- ⑮ "통일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했는데, 10명도 채 안 되네요. 우리 사무국 인원들 10명 모두 참석해도 20명 안 되어요. ... 6회 마지막 강의 때는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좋은 강좌 개설해도 참석이 저조해 신이 나지 않아요."
- ⑯ "통일 후 얘기 많이 해주세요. 최근 북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했어요.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 지난 정부 못했다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쌤 나요."
- ⑰ "좋은 강사 좀 소개해 주세요. 탈북자 중에 말 잘 하는 사람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라야 해요. 젊은 여성 탈북자면 더 좋고요."
- ⑱ "시절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 정부 때 탈북자를 강사로 썼다가 윗분한테 혼났어요. 기껏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애써 놓았더니 반공교육으로 몰고 간다고요. 야 단맛고 다른 팀으로 쫓겨났어요."
- ⑲ "교장을 대상으로 강의를 먼저 해야 해요. 평교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장이 이해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잘 알았어요. 앞으로도 교장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계속 해주세요."
- ⑳ "인터넷 연결 안 돼요. 그냥 말로 해주세요."
- ㉑ "과워포인트로 원고를 보내주세요. 요새 추세는 ppt이거든요." "오늘 강의 주제는 ppt 필요 없는데요. ppt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ppt보다 보면 강의 흐름을 놓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세요."

"질의응답 시간 꼭 주세요. 질문이 뭐가 나왔는지 위에 보고해야 돼요."

"질문시간 주지 마세요.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횡설수설하거나 말꼬리 잡는 투로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사람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얘기 길게 늘어놓는 바람에 좋은 분위기 망쳐버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렸어요. 질문할 사람은 나눠준 종이에 써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사회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서 교육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는 '중간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적은 대신,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다.
- ② 통일교육 방향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주체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합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③ 통일교육 참여자들의 관심 부족과 열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 ④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고 싶어 하는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형성된 이해의 바탕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표출된다.
- ⑤ 사회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통일 환경의 변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자료의 개발, 강사의 전문성 고양 등 교육현장에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⑥ 시민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청된다.
- ⑦ 통일교육을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아닌, 주되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⑧ 통일부담금이 개인에게 돌아갈 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통일이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와 함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⑨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부의 통일교육 방안이 일반인의 관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⑩ 교수 요원들에 대한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강의해 줄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 ⑪ 교사 통일교육 연수 때 강사가 몇 안 되어서 섭외가 어렵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하는 강사가 지방에는 소수여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⑫ 통일 후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크므로 이를 집중 연구, 그 결과를 미리 알려 충격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데, 이를 알려주는 강의가 전혀 없음
- ⑬ 통일교육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우려될 정도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이 전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화해·협력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으로 강의하는 강사가 있어 걱정이다.
- ⑭ 공공 사회교육기관에서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과 동일시한 나머지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열의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문제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과정과 내용은 안보중심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며 경직되고 획일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민간사회교육기관의 경우는 교육내용이 다양하지만 프로그램 남발과 중복으로 특화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⑮ 민간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대중매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본 정보 접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참여자들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 ⑯ 대부분의 사회통일교육기관이 상황이 열악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자체적인 자료를 개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다양한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 사회교육기관에서는 기존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통일교육 자체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 ⑰ 다양한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교육 실태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다양함 속의 혼란'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⑱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된 사회통일교육 체계가 작동해야 정상화될 수 있다. 인력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행체계를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 ⑲ 민간부문의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시장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사례를 적극 발굴,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청 III

이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선 사회교육현장의 사회통일교육 개선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통일교육의 표준 콘텐츠를 요청한다.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은 주로 안보중심의 통일관을, 민간 사회교육기관은 협력, 공존, 평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지향한다.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일반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 뿐 아니라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와 동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이라는 역사적이고 범민족적인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화와 담론 형성과정으로서의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일정한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에 대한 제시가 교육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달된 내용이 통일교육 현장에서 공감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교수자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일 환경으로 인해 통일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목소리이다. 정부 차원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거,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침서에 담아 이를 기본으로 한 다음,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응용해 줄 것을 전달·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그동안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 의존적 적대관계, 협력적 적대관계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통일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컸다. 이는 현장의 고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민이었다. 오랜 기간의 적대적 관계가 낳은 반공이데올로기 중심 통일교육,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국가안보를 중시해 온 안보중심 통일교육,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동반자 강조의 통일교육 등 다양한 통일교육 전범을 통해, 이제는 무엇이 통일교육의 핵심인지, 변화하는 통일 환경 속에서도 빼놓으면 안 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교육인지를 잘 깨닫고 있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일교육 콘텐츠 확립·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사회통일교육 관련 시스템 및 제도의 체계화를 요청한다.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에 기초해 이루지고 있다.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각 기관의 교육목표와 추진 방침에 의해 진행되어 일정한 시스템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 사회통일교육은 기관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상황에 부응하는 단기 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사회통일교육기관은 재정적 기반, 기관끼리의 연관체계, 통일교육 실행능력 등의 교육 기본요건이 미흡한 수준이다. 공공 사회교육기관과 민간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일교육현장이 요청하는 도움과 안내,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의 조력을 제도화하는 사회통일교육의 작동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교육의 중심을 확립하는 제도적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상태로 방치할 경우, 편향된 다양성이 초래하는 가치관 혼란과 통일관련 국론분열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의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끌어 나가면 되지만, 민간 영역의 사회통일교육은 관련 NGO와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는 인식 전환과 접근이 필요하다.

3. 피교육생들의 참여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다.

어떤 통일교육 현장을 가보더라도 숫자 채우는 것을 제1순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은 오랜 관행이자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민간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장을 벌여놓아도 숫자를 채우기가 힘든 현실에 고민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선입견,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세대특성, 삶과 밀접하지 않은 통일문제 자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소신과 의지를 갖고 통일교육의 장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민간 사회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의 참여 부족을 가장 큰 고민으로 제기하고 있다. 요컨대, 숫자를 채우는 문제는 통일교육 현장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육현장에서 겪는 고민이다.

한편, 피교육생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양적 참여 문제와는 다른 질적 참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피교육생을 어떤 방법을 써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들의 틀에 박힌 관심과 관행을 전환·제고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환기시키는 참신하고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강의 또는 강연 끝나고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뒤풀이 행사를 광고하여, 현장의 숫자를 확보하는 교육지책을 단골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방식은 예산 확보 부담이 적지 않고, 교육과 다른 요소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담보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원하는 교육대상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을 감안, 교육생 참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제도를 활용해 교육담당자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현장 담당자들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청취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의가 좋았다'는 반응과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는 평가보다 더 좋은 참여 유인 요소는 없다는 사실에 착목,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유능한 강사 섭외를 요청한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유능한 강사 확보 여부이다. 강의나 강연 끝난 후 '오늘 강의 좋았다', '내용이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통일교육을 준비한 교육담당자나 프로그램 운영자는 원한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저런 강사를 섭외했느냐', '통일교육은 재미없어 못 듣겠다', '정부 정책 홍보 듣자고 이렇게 시간 허비할 수 있느냐', '늘 같은 사람만 강의하느냐' 등의 반응은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선 '그야말로 죽을 맛'이란 심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고, 유능한 강사라고 평가 받고 있는 사람은 시간과 재정 여건으로 섭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과 같이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새로운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대우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신진 강사는 새롭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열의가 있어 강의 환경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강사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강사를 모시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공공 교육기관은 강사료가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고, 민간 교육기관은 재정이 열악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기가 쉽지 않다. 결국 많지 않은 강사료로 교육을 망치지만 않을 정도의 강사를 모시다보니 교육효과 제고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후 반응도 신통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강사진 섭외 과정에서 강사 모시는데 급급하여, 강의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유명 강사의 경우 강의 내용보다는 강사 네임밸류로 내용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통일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요컨대, 좋은 강사, 유능한 강사, 통일교육 효과를 책임지는 강사를 '발굴'하여 적절하게 '보급'하는 일이 강의 콘텐츠 개발과 함께 통일교육 효과성 제고 차원에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강사 풀을 형식적으로 제공만 하는 현행 차원을 넘어서 맞춤형 강사를 찾아내 섭외하는 문제, 유능한 강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이 향후 주력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매뉴얼 제안 IV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요청을 토대로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매뉴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회통일교육이 정해진 길지 않은 시간 - 보통 한두 시간 - 안에 끝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인 교육계획 설계자 및 운영자,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를 매뉴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효과 매뉴얼

- ① 강의 특성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 ② 교육대상에 맞는 주제 선정과 강의안이 필요하다
- ③ 교육시간에 맞는 교육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 ④ 강의 호응과 반응은 강사의 책임이다
- ⑤ 연속강의와 강사진 연합강의가 진행될 경우 강의구성 짜임새를 갖춰야 한다
- ⑥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과의 소통과 대화를 시도한다
- ⑦ 강의 종료 후 강사 자신이 강의 진단을 실시한다
- ⑧ 교육담당자는 강의 반응 및 강사 호응도를 평가한다
- ⑨ 통일교육 일지를 작성, 업무 연속성을 제고한다
- ⑩ 지역 실무(사무)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2. 교육내용 전달 매뉴얼 : 강사의 역할

- ① 보통 때보다 천천히 말해야 한다
- ② 오늘 강의의 핵심을 먼저 분명하게 전달한다
- ③ 강의 주안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 ④ 절대로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 ⑤ 논문 발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⑥ 졸지 않는 강의를 해야 한다
- ⑦ 파워포인트(ppt)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한다
- ⑧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3. 교육시간 활용 매뉴얼

- ① 교육 시작 전에 도착, 교육장소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한다
- ② 교육의 성격과 참석대상을 사전에 파악한다
- ③ 강의시간과 분위기에 맞는 강의를 명강이다
- ④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 교육효과를 높인다
- ⑤ 강의 주안점을 반복·강조하면서 강의를 맺는다
- ⑥ 강의진행계획에 맞춰 강의를 진행한다
- ⑦ 교육시간 주역인 강사를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V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상의 의견과 건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사회통일교육 현황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통일교육지침서」상에 나타난 통일교육 내용은 양호하다. 급변하는 통일 환경과 정책 수요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진행, 콘텐츠의 현실 적실성과 교육 활용도는 양호한 편이다. 단지, 우리 사회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만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강점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통일과 관련된 미래지향적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통일 미래상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절로 할애하여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2.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제시한 교육지도방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적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2시간 동안 주어진 교육시간을 활용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내용과 기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을 조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이뤄내야 하는지를 지도하는 [성공적인 통일교육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강의 모듈을 제공한다면 통일교육의 표준화도 유도할 수 있고, 교육효과도 제고할 수 있어 '다양함 속의 혼란'으로 표현되는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영상 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는 매뉴얼까지 곁들인다면 교육효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통일교육 현장 운영지침도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하면, 통일교육현장의 가변성을 강사와 교육운영 담당자가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는가에 교육효과가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운영담당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지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와 어떤 주제로 얼마 동안의 시간 안에 교육을 진행하는가를 강사 섭외 과정에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 강의 시작 전에 진행되는 의례와 행사가 강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장과 정치인의 인사 및 축·격려사가 30분 이상 진행되다 보면, 통일교육이 뒤로 밀려나는 인상을 주게 되어 교육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현장 진행 매뉴얼이 함께 제시되어 교육현장의 통제와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사회통일교육의 성공적 진행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강사'문제이다. '누가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의 지적이다.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누가 가르치는가에 대한 요인이 사회통일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들어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효과성여부는 별도로 세밀하게 측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인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단순히 북한 실상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그리고 북한보다 우리가 낫다는 얘기만으로 통일교육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로 구성된 예술단을 초청해 북한 노래 몇 곡 듣고 북한 춤 보는 것으로 통일교육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자로 구성된 예술단을 초청하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지역 행사로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호소도 제기되고 있고, 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쪽 출신 브로커라는 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생들로부터의 호응과 참여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 몰두하다보니 돈이 들더라도 탈북자 출신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 민간기관의 사회통일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 있다.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유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의하면 현재보다 통일교육의 체계와 작동원리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으나, 다양성과 설립 취지를 앞세운 민간기관이 주최하는 통일교육을 지도·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교육효과가 높고 통일교육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상의 평가를 토대로 판단할 때, 사회통일교육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누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육원 교수진을 갖추고 있어 교육의 수월성과 체계를 유지·보완할 수 있지만, 통일교육 할 때마다 통일교육 강사를 섭외·지원 받아야 하는 일선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통일교육위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지만, 통일교육위원 전원이 통일교육의 수월성과 효과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모두가 유능한 강사로 일선에 나서기에는 아직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역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교육위원이 사회통일교육의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통일교육위원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양호하게 나온 경우, 이를 모델로 삼아 사회통일교육의 표준 모형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을>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준비된 영역이어서 부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정도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침서』에 있는 사회통일교육의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맞는 표준 강의 모듈과 매뉴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급·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을 보면, 학교용에 비해 통일교육의 주안점 소개라든가 교육과정별 권고사항이 빠져 있다. 학교용 활용도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강조하고⁵⁾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맞는 권고사항과 교과운영(도덕·사회·국어·예체능)에 맞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처럼, 사회통일교육 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참고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지침서(일반용)에 있는 지도방법이 오히려 학교용 지침서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필요한 통일교육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교육 실행시 참고할 주요 내용만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운영 지침 및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에 통일교육 주안점으로 제시된 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②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③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산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④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⑤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⑥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이 사회통일교육 과정에서도 주안점으로 강조되어야 함.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서울: 통일부, 2010), pp.15-19.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어떻게〉는 ①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고, ②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며, ③ 질의응답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거창한 명칭을 내세운 전문적 교육기법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이론적 아이디어나 용어의 참신한 기법 제시는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교수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숙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성인교육 형태의 학습과정에서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교수내용의 인지 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언급과 "그러나 담당 교수자에 대한 총평과 인상, 교수된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반응은 다각적으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는 권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의 호응도와 인기도에 함몰되다보면 교육의 목표와 진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학생 대다수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수학 과목을 없애거나 수학 담당교사를 바꾼다는 얘기와 연관되는 지적이다.

사회통일교육의 관건은 결론의 제시보다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와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피교육자들 스스로 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어떻게〉의 핵심이다.

한편, '다양성의 혼란'을 빚고 있는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접근보다는 잘 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장려하고 이에 부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늘려 맞추기'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시장의 원리에 맡기되, 통일교육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6) '95년판 통일교육지침서가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기본방향(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1998), p.75에 실린 표현.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VI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일교육을 <누가> 담당하는가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일교육 운영주체 및 강사를 대상으로 사회통일교육 매뉴얼 설명과 숙지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통일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실행주체를 대상으로 사회통일교육 모범 강의를 실시, '표준화 속의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범 강의 선정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넷째,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지역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무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통일교육 내용에 꼭 들어갈 콘텐츠를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를 숙지할 수 있는 별도의 콘텐츠 책자를 만드는 교육내용의 표준화 체계 마련,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보완·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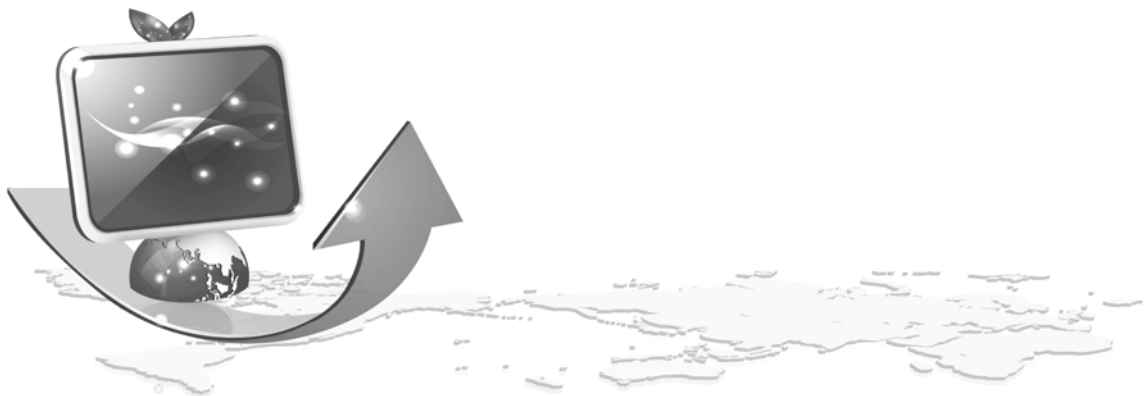
여섯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도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좋은 유능한 강사의 요건을 예시, 효과적인 교육기법을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통일교육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누가>에 가장 큰 비중과 역할이 달려 있을 것을 주목, 사회통일교육을 운용하는 참여주체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보수교육의 조기 가동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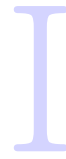
사회통일교육의 사례와 개선 방향

이 상 근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장)





들어가면서



2005년 5월에 제14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한지도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육위원경남협의회 위원, 수석 부회장, 회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정체성, 통일교육위원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위원으로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부딪쳐보기도 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 주춤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늘 가슴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보다는 우리 사회 통일이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빈약한 지역사회에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희망의 터전은 지역통일교육센터였습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2004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8년째 접어들었으며, 경남지역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성과들은 이제 우리 모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통일교육센터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책임자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느꼈던 저 자신의 경험들이나 노하우도 비록 개인의 주관적인 소회일지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하였던 6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바른 통일을 위한 두 가지의 소회를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 과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역대 회장들의 사심 없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조직 속에 흐르는 미세한 갈등이 증폭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권위나 학식, 전문성이 아닌 사심 없는 자기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무보수 명예직인 통일교육위원의 본연의 자세이며, 통일교육이 가진 공공재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위원경남지역협의회의 역대 회장이나 임원진이 지닌 단체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감, 그리고 동지애로 뭉쳐진 헌신과 솔선수범이 지금까지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순기능적으로 이끌어 온 핵심 동력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둘째, 본 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통일정책의 정체성이 지역민이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과 령에 의해서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접근해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일정책은 정권교체나 이념을 초월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 숭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이러한 균형 잡힌 생각과 건강한 통일관을 통해 임하여 왔기 때문에 변함없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는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통일교육위원경남협의회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의 사업 활동 현황과 영역 별로 사업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바른 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요약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동 현황과 평가 II

1.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법적 근거 및 경남지역의 현황

가.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법적 근거

지역사회통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로 하는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09년 10월 19일, 법률 제 9800호로 일부 개정되기까지 세 번의 개정절차가 이루어졌다. 그 중 2005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을 전담할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 사유는 “국민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부분적으로 무질서한 통일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8년, 통일에 관련해서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이 정부직제 변경으로 인해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2009년에 들어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의 통일교육 심의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통일교육 기본계획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다.

이처럼 2009년에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나.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현황

2006년, 통일교육위원경남협의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는 변화된 통일 환경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풀어 나가기 위한 대국민 통일 교육 사업을 중앙 및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자산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통일교육위원경남협회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통일교육위원경남협회 조직표

직위	인원	역할	비고
회장	1		통일교육위원
중앙위원	1		통일교육위원
부회장	4(남 3, 여 1)		통일교육위원
사무처장	1		통일교육위원
사무국장	1		통일교육위원
운영위원	17		통일교육위원
위원			통일교육위원
사무원	1	사무실관리, 교육위원활동 보조, 뉴스레터 제작	남, 유급직

(출처: 단위협의회 및 지역 센터 기구표 : 2011년 현)

사업을 위한 예산은 통일부의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에는 국고보조금 4,000만원(49.4%)과 자부담 4,100만원(50.6%), 2007년에는 국고보조금 3,000만원(65.2%)과 자부담 1,600만원(34.8%), 2008년에는 국고보조금 3,500만원(58.3%)과 자부담 2,500만원(41.7%), 2009년에는 국고보조금 3,500만원(58.3%)과 자부담 2,500만원(41.7%), 2010년에는 국고보조금 6,000만원(61.1%)과 자부담 1,400만원(18.9%)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지원법과 동법에 대한 시행령 및 매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시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지역과 단체의 특성을 맞게 자율성과 노하우를 축적해가면서 운영하여 왔다.

2. 경남지역 통일 교육 센터의 사업별 활동 현황 및 평가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강좌, 학교 · 지역 순회 통일교육, 체험학습, 커뮤니티 및 포럼, 그리고 경남지역 특색사업 활동 등이 있으며, 연도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21,659명을 대상으로 6개 사업 총 33회 활동을 한 본 센터는 2007년에는 7개 사업 총 17회 활동으로 57,154명, 2008년에는 7개 사업 총 23회 활동으로 63,248명, 2009년에는 7개 사업 총 25회 활동으로 44,229명, 2010년에는 7개 사업 총 42회 활동으로 33,613명을 교육하였다.

가. 시민강좌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시민강좌는 ‘열린통일아카데미’ 라는 사업명으로 실시하였다. 사업목적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론통합’ 과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등 이며 특히, 2010년부터는 ‘건전한 안보관 확립 및 통일의지 함양’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상은 시민, 교사,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4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 활동 현황

2006년도에 실시된 시민강좌는 8회, 2007년 3회, 2008년 4회, 2009년 4회, 2010년 8회로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시민강좌 계획 및 실적

년도	계획	추진실적	참가단체 및 인원
2006년도	8회 / 400명	8회 / 420명	통일교육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007년도	3회 / 700명	3회 / 738명	교사 및 지역주민 고성로타리 클럽 등
2008년도	2회 / 800명	4회 / 895명	지역주민 등
2009년도	2회 / 1,000명	4회 / 1179명	지역주민 등
2010년도	8회 / 600명	8회 / 655명	학교관리자(교장), 지역주민 등
계	23회 / 3,500명	23회 / 3887명	

(출처: 2006-10년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평가보고서)

2) 분석 및 평가

시민강좌의 사업 분석 및 평가 결과의 의의는 첫째, 지역의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분단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통일의지를 함양하고자 하였으며, 세대간, 지역 간에 나타나는 남남갈등과 통일의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과 북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다. 그리고 둘째, 지역사회 통일교육전문가 양성 및 통일교육 클러스트 구축 기반 마련하였고, 지역사회에도 통일강좌가 개설됨으로써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 평가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체강사진과 강의 콘텐츠 확보문제를 들 수 있겠다. 강사와 콘텐츠 확보문제는 다 시말하면 자체 강사와 외래강사의 확보문제였다. 우리 지역의 협의회 교육위원 중에 20% 정도(10-15명)는 강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6년 당시는 우리 안의 남남갈등이 깊은 상황 탓인지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대북 접근에 대한 객관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당시 지역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당시는 시대적 아픔이었지만 위기가 기회로 된 사례라고 본다.

둘째, 강좌 장소 확보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참여 시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에는 상설 강의 공간이 열악하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장소 사용은 원활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또한 지역 주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강 인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과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통일교육’ 형태로 운영하였다.

셋째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시민강좌가 교육 대상자들에게 일회성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실효성이 없다는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민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양성할 것인가? 등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회통일교육이 평생교육의 기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인된 이수증을 수여하는 방안과 수강생들의 인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학교통일교육¹⁾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학교통일교육은 ‘학교순회통일교육’ 또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사업명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을 대상 실시되었던 ‘통일안보현장체험 학습’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상 학교는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와는 연계하여 활동하였으며 특히 이와는 별도로 각급 학교 통일교육 담당자나 학교장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남 지역통일센터 지정 통일교육선도 학교를 선정하여(2010년 30개교 선정 후 19개 학교에 통일교육 실시) 학교통일교육을 진행하였다.

1) 사업현황

2006년도에 실시된 학교통일교육은 12회, 2007년 3회, 2008년 5회, 2009년 7회, 2010년 19회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학교통일교육 계획 및 실적

년도	계획	추진실적	실시지역 및 대상
2006년도	12회 / 2,000명	12회 / 2,738명	고성, 거제, 거창, 김해, 사천, 진주, 창원 학생 및 교직원 등
2007년도	3회 / 600명	3회 / 660명	김해, 사천, 산청 학생 및 교직원 등
2008년도	5회 / 1,000명	5회 / 1,184명	고성, 진주 학생 및 교직원 등
2009년도	7회 / 1,500명	7회 / 1,592명	고성, 사천, 진주 학생 및 교직원 등
2010년도	19회 / 2,000명	19회 / 2,870명	고성, 김해, 남해, 마산, 사천, 양산, 진주, 창녕, 창원 학생 및 교직원 등
계	46회 / 7,100명	46회 / 9,044명	

(출처: 2006-10년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평가보고서)

1) 통일교육을 장소에 따라서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사회통일교육 개념은 명확한 개념이 아니지만 논리 전개상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사회통일교육이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2) 분석 및 평가

교육실시 후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본 학교통일교육의 사업 분석 및 평가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통일여론의 함양에 도움을 준 점과 둘째,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용되어졌거나 왜곡되어진 통일관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러 다양한 학교로 대상의 폭을 넓혀 지원할 필요와 함께 지역주민,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에 의한 통일교육의 수요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둘째, 통일교육의 방법상 동기부여 및 흥미유발 방안 강구 즉 이론과 영상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는 점이라 하겠다.

다. 통일현장 체험학습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현장 체험학습은 ‘체험하는 분단! 만들어 가는 통일’ 이라는 사업명으로 실시하였다. 사업 목적은 통일교육 현장 기행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아있는 분단현실의 아픔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분단현실을 인식함으로써 통일여론을 고취하는데 두었다. 특히 경남지역은 접경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접경지역인 남북출입사무소, DMZ 및 GP 현장과 판문점, 대성동 마을 등의 견학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상자의 선정은 ‘시민강좌’, ‘열린통일포럼 및 커뮤니티’, ‘통일문화축제’ 등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하였고(년 1회), 지역 사회 단체 임원 및 오피니언 리더, 학교통일교육관계자인 교장 및 교사 등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 1회 정도는 경남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급 학교 학생회장이나 간부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사업현황

2006년도에 실시된 통일현장체험학습은 3회, 2007년 1회, 2008년 4회, 2009년 3회, 2010년 4회가 실시되었다. 특히 2007년 1회 밖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으로 추진 계획을 1박 2일로 세웠고, 참여자의 자비 부담을 늘렸으나 비용의 문제로 추가 실시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하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실시하였던 통일현장체험학습의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통일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실적

년도	계획	추진실적	체험지역 및 대상
2006년도	3회 / 100명	3회 / 135명	도라산역, 거제포로수용소 등 학생 및 지역주민 등
2007년도	1회 / 40명	1회 / 40명	하나원, 통일교육원,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등 통일교육위원 등
2008년도	4회 / 200명	4회 / 292명	남북출입사무소, 거창 위천초 등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2009년도	3회 / 100명	3회 / 132명	도라산역, 거제포로수용소 등 학생 및 지역주민 등
2010년도	4회 / 200명	4회 / 250명	제3땅굴, 임진각, 판문점, 대성동마을, 거제포로수용소 등 학생 및 지역주민 등
계	15회 / 640명	15회 / 849명	

(출처: 2006-10년 경남지역센터 운영평가보고서)

2) 분석 및 평가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가 실시하였던 통일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접경지역으로는 남북출입사무소, 제 3땅굴, 판문점, 대성동마을, 도라산 전망대, 철원노동당사, 전방부대 철책선 및 GOP 방문 등이었고, 지역사회 통일현장은 지역군부대, 거제포로수용소,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충무공 유적지(한산도), 빨치산 루트(지리산) 등이었다. 그 밖의 장소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사업소(하나원) 등이 있었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에 적극성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현장체험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을 직접 듣는 등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하며, 대상자로 하여금 깊이 있고 종합적인 통일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자치단체(통영시)와의 협조를 통해 실시하였던 다문화 가정의 통일기행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에게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능 이후 고3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통일기행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비 대학생 및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변경지역으로의 체험학습은 긴 차량 이동시간(보통 왕복 9시간 이상 소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일문제 관련 비디오를 준비하여 시청각 교육을 하였고, 각 사업 실시마다 통일교육위원 및 통일교육 전문가인 교사 등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차량이동 중 5분-10분 정도의 통일교육 특강을 Q&A식으로 자료집을 제작하여 20회 이상을 실시하였다.(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참조)

평가 결과 교육의 호응도나 효과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참여 기회의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향후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주고 그 참여 층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통일의식의 내면화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통일교육현장체험학습 후 소감문 발표나 의견교환, 평가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우수 기행문을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커뮤니티 및 포럼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커뮤니티는 ‘G-PU Conference (Gyeongnam Peace Union Conference)’ 이라는 사업명으로 실시하였다. 사업목적은 G-PU Conference를 개최하여 각종 통일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를 통한 통일문제전문가의 협의체 구축과 워크숍(세미나)를 통한 전문성을 함양에 있으며 또한 통일교육에 관한 주제로 통일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및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역통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소재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상호 통일교육 연계체제(Cluster)를 형성, 지역사회 통일교육 기반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통일포럼은 ‘열린 통일포럼’ 이라는 사업명을 실시하였고, 사업 목적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올바른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조성하여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통일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커뮤니티와 포럼의 형식은 비슷하게 운영하였는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에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간담회나 관계자 회의를 넣어 운영하였고, 지역통일교육센터와 단체 간 통일교육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대상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통일관련 단체나 사회단체 임원, 학교 관리자나 교사 등 경남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실시하였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1) 사업현황

2006년도에 실시된 커뮤니티 및 포럼은 10회, 2007년 9회, 2008년 9회, 2009년 7회, 2010년 8회가 이루어졌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커뮤니티/포럼 계획 및 실적

년도	계획	추진실적	참석대상
2006년도	1. 통일교육커뮤니티 8회 / 400명 2. 열린통일포럼 2회 / 200명	1. 통일교육커뮤니티 8회 / 470명 2. 열린통일포럼 2회 / 296명	학생 및 지역주민, 통일관련단체 등
2007년도	1. 통일교육커뮤니티 6회 / 200명 2. 열린통일포럼 1회 / 100명 3. 정책설명회 2회 / 90명	1. 통일교육커뮤니티 6회 / 269명 2. 열린통일포럼 1회 / 140명 3. 정책설명회 2회 / 97명	학생 및 지역주민, 교사, 통일관련단체 등
2008년도	1. 통일교육커뮤니티 7회 / 700명 2. 운영평가보고회 2회 / 90명	1. 통일교육커뮤니티 7회 / 710명 2. 운영평가보고회 2회 / 97명	지역주민, 통일관련단체 등
2009년도	1. 통일교육커뮤니티 6회 / 400명 2. 운영평가보고회 1회 / 40명	1. 통일교육커뮤니티 6회 / 422명 2. 운영평가보고회 1회 / 45명	교사, 지역주민, 통일관련단체 등
2010년도	1. 통일교육커뮤니티 6회 / 300명 2. 통일교육위원워크숍 2회 / 100명	1. 통일교육커뮤니티 6회 / 360명 2. 통일교육위원워크숍 2회 / 115명	통일교육위원, 교사, 통일관련단체 등
계	43회 / 2,620명	43회 / 3,021명	

(출처: 2006-2010년, 경남지역센터 운영평가보고서)

2) 분석 및 평가

커뮤니티 및 포럼은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중점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일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정보교환 및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통일교육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지역센터 강의요원으로 해당지역 통일교육위원, 대학통일문제연구소 관계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전문가 풀(Pool) 구축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통일교육 클러스트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²⁾

이 사업은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중점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기반구축이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이러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첫째, 탄탄한 클러스터 구축. 둘째, 시스템(운영 노하우)의 확보라고 본다. 특히 클러스터 구축의 경우, 다양하게 외연이 확대 구축 되지 않고, 지역적인 입장에서 머물러버리면 이 사업자체가 운영자 위주의 관련된 단체나 동창회 모임이나 계모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 특색활동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특색 사업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통일문화축제’, 통일문화축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청소년통일문화캠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 등이 있다. 지역축제와 병행한 통일문화축제는 2006년에는 진주에서 개최되는 개천예술제 및 남강유등축제와 병행하여 ‘대결을 넘어 화해로,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거창국제연극제와 병행하여 거창 국민관광단지내의 수송대에서 ‘한반도 생명과 평화를 위한 액팅(Acting)’ 이란 슬로건으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천시 바다축제와 병행하여 삼천포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같은 슬로건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007부터 실시하였던 통일문화축제에서는 ‘애들아! 통일로 가자!’ 라는 주제로 ‘청소년통일문화캠프’ 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 은 ‘통일메아리’ 라는 사업명으로 2008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1) 사업현황

2)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 협력 MOU를 맺은 단체나 기관은 16개이며, 이 중 매우 활발히 상호 협력 및 공동 주관으로 연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단체는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경남통일교육연구회,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사단법인 경남미래교육포럼, 새교육공동체고성주민모임 등 4개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통일문화축제는 매년 1회 실시되었으며, 새터민 정착지원 활동은 2008년 2회, 2009년 3회, 2010년 2회가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6〉 특색활동 계획 및 실적

년 도	계 획	추진실적	실시지역 및 대상
2006년도	1. 통일문화축제 1회 / 15,000명	1. 통일문화축제 1회 / 17,600명	1. 진주 남강 일원 /지역주민, 통일교육위원, 자원봉사자 등
2007년도	1. 통일문화축제 1회 / 15,000명	1. 통일문화축제 1회 / 55,210명	1. 거창 수송대 일원 /지역주민, 통일교육위원, 자원봉사자 등
2008년도	1. 통일문화축제 1회 / 17,000명 2. 새터민 정착지원 2회 / 50명	1. 통일문화축제 1회 / 60,000명 2. 새터민 정착지원 2회 / 70명	1. 거창 수송대 일원 2. 진주/지역주민, 통일교육위원, 자원봉사자 등
2009년도	1. 통일문화축제 1회 / 40,000명 2. 새터민 정착지원 3회 / 100명 3. 청소년 통일캠프 2회 / 40명	1. 통일문화축제 1회 / 40,700명 2. 새터민 정착지원 3회 / 119명 3. 청소년 통일캠프 2회 / 40명	1. 거창 수송대 일원 2. 월성 3. 진주/경남지역청소년봉사단, 새터민, 통일교육위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2010년도	1. 통일문화축제 1회 / 20,000명 2. 새터민 정착지원 2회 / 600명	1. 통일문화축제 1회 / 28,700명 2. 새터민 정착지원 2회 / 663명	1. 사천 남일대 일원 2. 진주/지역주민, 통일교육위원, 자원봉사자 등
계	14회 / 107,790명	14회 / 203,102명	

(출처: 2006-2010년 경남지역센터 운영평가보고서)

2) 평가 및 분석

2006년 개최된 통일문화축제는 진주에서 개최되는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에 개최하여 12일 동안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첫째, 통일부의 협조로 북한 풍물문화

관 개설하여 개성공단 물품 및 북한산 품물(개성공단의 문창기업, 한국체인 연계)을 소개하고 판매하였다. 둘째, ‘시민참여 한마당’으로 통일 관련 3-4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셋째, ‘북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북한교과서’ 등의 자료와 각종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품, 금강산 등 북한 관련 사진 등을 전시하였다. 아울러 통일문제 및 북한 관련 각종 자료를 현수막으로 실사하여 부스 내에 설치하는 등 견학자가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 개최된 통일문화축제에서는 전시회로 통일관련 패넬전시, 북한 및 통일관련 사진전, 북한교과서 및 잡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시민참여 한마당으로 도전! 통일골든벨, 통일 3-4행시 짓기, 통일퍼즐풀이, 통일메달만들기, 통일메세지 남기기, 통일노래자랑, 통일홍보 전단지 배부, 통일의식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거창수송대 국민관광단지 관리소 및 거창국제연극제 재단과 연계하여 국제연극제 프로그램 소개서 및 각종 공식유인물에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행사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참여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통일문화축제를 시작한 2006년부터 전시공간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통일교육위원을 행사기간 내내 5-10명씩(당번제로 무보수 봉사) 배치하여 관람객의 질문에 대답하고, 각종 안내 및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의 통일문화 축제에는 청소년통일문화캠프와 결합하여 운영하였는데 전시 공간 등의 부스에서의 봉사 활동, 통일홍보 전단지 배부, 학생들이 피서객을 직접 찾아가서 통일퍼즐이나 통일 3-4행시 짓기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봉사활동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청소년통일문화캠프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표와 같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표7〉 청소년통일캠프 일정표 (2010년)

시간	첫째날(8.2.토)	둘째날(8.3.일)
07:00		기상 및 산행 아침식사 • 주제학습 : 모듬활동 후 발표 (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분단 고통 조사하기 등) • 시청각 교육 및 특강 (북한이해교육)
8:00		
9:00		
10:00		
11:00		
12:00	• 캠프 장소 이동	• 북녘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통일교육원 오충석 과장 특강)
13:00	• 입소식	• 점심 식사
14:00	• 통일문화축제 체험활동 (전단지 봉사활동)	
15:00	• 통일3-4행시 짓기, 통일퍼즐 (십자말풀이)등	
16:00	• 모듬활동(통일염원 걸개그림그리기) • 통일문화축제 지정부스 자원봉사	• 통일 골든벨 행사 참여 및 보조 활동 • 통일홍보 전단지 봉사 • 모듬별 평가 및 시상식
17:00		• 이동 및 해산
18:00		
19:00	• 저녁식사	
20:00	• 연극관람(거창국제연극제)	
21:00		
22:00	• 통일잔치마당(통일광고 경연대회 : 6개 모듬별 경연, 장기자랑, 촛불의식)	
23:00	취 침	

(출처: 2010년 경남지역센터 운영평가보고서)

본 행사는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에 있어 대표적으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저비용 고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유했으면 한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행사이다. 200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통일교육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의 입장에서 항상 조심스러운 분야이다.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미하지만 기초적이거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른 통일을 하지고 역설할 수 있겠는가. 이 사업은 바로 우리 안의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이들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웃처럼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처음에 사천시 및 사천시경찰서에서 추천받은 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서 성금을 전달하고 위안의 밤을 열어 준 것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09년에는 정례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좀 더 체계화시켜 정착시켜야겠다는 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 기금 모금 일일 찻집 행사를 개최해서 성금 300만원을 모금하였고, 동년 12월에 국정원경남지부의 추천을 받은 북한 이탈주민 6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 기금 조성에 도움은 준분들을 초청하여 성금 전달식 및 위안의 밤을 가졌다.

사업의 평가 결과로는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 무료 법률지원 및 멘토링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이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은 1회성 행사로 끝나기보다는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형태의 다양한 활동으로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 개선방안 III

이상으로 지난 5년 동안 동 센터가 시행한 사업현황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평가 해보았다. 본 주제문에서는 본사업의 시행자가 자체 실시한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의 의미보다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사업들을 주관하고 직접 참여하여 온 운영책임자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소회를 가감 없이 발표하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용, 콘텐츠 확보, 통일교육 강사 등의 측면에서 향후 통일교육 개선방안이나 발전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면에서는

첫째,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사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년째를 접어들지만 전국적인 홍보 영상물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사업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기획하고, 전문사업체에 용역을 준 후 1년 동안 전국의 센터를 아우르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 지역센터로 배부하여 주었으면 한다.

둘째, 지역교육센터를 법인화하여 통일교육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한다. 또한 전국에 지정된 센터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모임을 상설화하고, 다양한 연찬기회 제공 등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간의 정보교환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 기회 제공하였으면 한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시설사용, 인원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강제 조항)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예를 들어 광역시 및 기초단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던지 평가 항목에 넣는 방안이나 국책 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이 될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국고보조금의 정산 서류 및 보고서를 간소화시켜 불필요한 인적·물적 낭비를 방지하도록 건의하며,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여 사기 진작(해외연수나 표창상신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첫째, 통일교육센터가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성을 추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 사회 내 통일교육 기관·단체 간의 상설 운영체 및 교육장소(강의 장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사무실 운영비로는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설교육장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부족한 통일교육 기회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상설 통일교육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중 임대료 등의 경상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지역사회 통일교육 물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모든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사무국을 설치하여 상근자를 두고, 지역통일교육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해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획기적 증액은 물론 법적 지원 체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역사회 통일교육 단체나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 센터에서는 인터넷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 위의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로 시행하는 평가회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평가회를 실시하는 방법과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협의회나 센터의 운영책임자나 실무자에게 인센티브(해외연수나 표창상신 등)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통일교육센터 중심으로 e-cluster를 구축하여 회원단체 간의 통일교육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본다. 회원제로 운영하여 이메일 및 뉴스레터를 제공해할 수 있도록 하며, e-cluster 분야별 카페 운영을 통해 온라인상의 각종 교류 모임 활성화, 지역 언론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홍보에 대한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지역통일교육센터 각 단위 사업 추진시 정(政)·관(官)·민(民)·학(學)·연(研)·언(言) 등이 연계성 강화로 관계적 근접성을 제고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통일의식 제고와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북한이해교육 및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사전계획과 관계기관 협조, 강사교육, 교재제작, 진행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이벤트 성 일회성 행사보다는 체계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각기 지역 통일교육센터의 역량에 맞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양질의 통일교육 콘텐츠 및 우수한 강사 확보문제이다. 통일교육원에서는 표준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PPT나 영상물로 제공해 주면 각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통일교육위원 등의 연찬회를 통해 모범 강의안을 만들어 검증한 후 지역사회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강사진 구비는 필수적이다. 양질의 강사를 확보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질적 발전과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가 더욱 더 증가되고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강사의 구성은 1차적으로 자체 구성진(통일교육위원) 2차적으로는 외부 강사진(유명강사, 북한이탈주민 강사)로 구성할 수 있다. 자체강사진으로는 아직까지 호응도가 약하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활용도에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양질의 콘텐츠 사용과 병행해서 앞으로 우수한 자체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현재 외부 강사진을 초청하려면 강사비가 많이 들고, 지리적 한계로 초빙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강사비의 현실화 방안도 과제 필요하다.



마무리 IV

1. 요약

이상으로 서론에서 본 경남지역 센터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지만 역대 회장을 비롯해서 전 임원진이 섬기는 리더십의 자세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순기능적인 관계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과 본문에서 다섯 개의 분야별로 세분해서 각각 현황과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용, 콘텐츠 확보, 통일교육 강사 등의 측면에서 향후 통일교육 개선방안이나 발전방안을 정리 하였다.

2. 제언

마지막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첫째,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통일관 확립을 통한 통일준비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의 기능을 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보수교육)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정부가 출연하는 가칭 ‘통일교육진흥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각종 대국민 통일교육활동 및 통일의식 관련 실태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통일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녔으며, 정치권의 갈등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법인형태가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국민통일교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하나센터 등을 관장하는 법인 형태의 가칭 ‘통일교육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착지원활동 등을 위해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센터도 궁극적으로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셋째, 통일교육은 가치지향적인 교육으로 통일과 교육이 결합된 형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정부 부서로서 담당자(공무원)가 1-2년 또는 6개월 정도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관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양성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끝)



토론내용 요약 자료

안 성 호 (충북대학교 교수)

허 문 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 희 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사회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1

안성호(충북대학교 교수)

1. 토론시작

김영수교수와 이상근위원의 좋은 발표와 분석에 감사드린다. 참고로 이와 연계하여 몇 가지 토론자의 견해를 제시해본다.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고, 멘토링을 통하여 잘 못된 통일교육으로 인하여 잘 못 알고 있는 통일한국에 대한 일반시민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시민들의 통일의식강화로 잘못된 역사인식 바로잡고, 대한민국정체성도 바로 잡는 등 공익적 활동에 시민들이 적극참여(사회통일봉사 성적제 또는 인증제제도 제도화도 고려.)

2. 중점과제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부문에 대한 교류와 동시에 첨단 국방력강화 수행이 필요하다.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를 스토리텔링식으로 다룬다.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우리나라 상징들의 올바른 이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나라의 중요성과 정통성 강조.

3.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콘텐츠 및 교재개발-사회적 멘토 자격심사-시민사회 통일교육 후원, 기업, 언론, 매체홍보 지원-시민 및 청소년 통일교육의 롤 모델 제시. 사회통일교육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통일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교육전문가를 민관 합동으로 양성하여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센터내 인터넷 통일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탑재한다.

통일교육프로그램 확대 -민간 통일전문 교육단체,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한다. 사회통일교육 전문성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향상을 위한 대학 및 통일단체 위탁교육 확대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원, 민주평통...). 시민 사회통일교육을 서울 전쟁기념관, 통일교육원, 천안독립기념관, 안동독립기념관, 지방청소년 연수기관 등 지방교육기관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인터넷, 동영상, 영화, 만화, 랩퍼, 인기가수, 인기연예인 활용. 각종 기념관, 학교, TV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편의, 북한의 기습 남침시물레이션, 북한실상, 전쟁참상실상, 625전쟁실상, 감동을 주는 전쟁따큐멘타리 등을 영화나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는 영상물제작배포. -국사시간에 10분짜리 등의 통일교육영상 소개(KBS 역사스페셜같은 프로그램 편집소개)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참상과 고통을 청소년 연배에 가까운 인기가수나 탈란트의 해설을 통하여 영상으로 보여 준다. (예, 「차마고도」 따큐멘타리 경우는, 나레이터 최불암으로 성공함).

통일부는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성의 양성평등교육과 같은 통일교육 동영상 제작(교육공무원, 교사, 학생, 인증제실시)

4. 사이버상에서의 통일교육 교사육성과 통일 안보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식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사이버공간활용 사회통일교육을 운영한다.

정부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회통일교육의 점유율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을 유도하는 인터넷상의 사이버통일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지원한다. 여기에는 지역출신 애국 향토영웅, 전적지 및 사적지 등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작업하여 사이버공간에 올려놓는다.

인터넷상에서 역사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도록 교과부-통일부-행안부-국방부 등이 연계하여 사이버 파숫꾼을 조직 및 구성해야한다.

<통일 E-BOOK>의 운영 - 홈페이지 <안보교육장 코너>를 신설하여 북한정세 등 실시간 통일, 안보 교육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등 사이버 접근매체 활용을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 통일교육단체 인터넷사이트 소개, 친북좌파운동권 시민단체 인터넷사이트 소개, 안보보수단체 인터넷사이트공개, 북한의 빈곤하고 인권사각의 실상을 전달하는 사이트소개, 건전한 안보교육을 위한 인터넷 관리망 소개한다.

‘페이스북’, ‘인터넷’, ‘스마트폰’, ‘트위터’ 등 최신 기술력과 ‘주부’ 들의 입소문 등이 최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음. 이를 비상대비 홍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사이버 통일광장 구축- 통일위한 현장탐방 영상촬영 과 탐방수기 인터넷에 안보공간마련 (통일교육에 활용).

건전한 통일교육전달을 위해 네티즌에 대응할 Q&A 와 퀴즈개발.

5.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NGO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한다. 통일보수단체 소개, 북한의 잘못 지적하는 기사소개, 북한의 가증스런 전쟁광 실태 폭로 시민단체소개한다. 가정과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보급한다. 대학교수, 전문가, 학교교사, 부모, 시민단체의 역할강화 - 가정용, 시민단체용 통일교재제작 보급한다. 학교통일교육 교사의 사명감- 반미 중북좌파 용공세력에 의한 잘못된 사회통일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통일교육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미 중북좌파 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통일국가 실천 강화를 위한 시민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안보 없이 평화통일불가함을 교재에서 홍보. 통일정책의 제반문제를 상정하여 통일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한다.

사회통일교육관련 멘토 조직의 부재- 통일거버넌스차원에서 통일교육 전문멘토 활용 및 양성사업을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통일시민단체-가정-학교교사-정부와 연계한다. 사회적 멘토, 통일해설사로는 현역에서 은퇴한 예비역 군인, 통일전문가, 교수, 강사 등을 활용한다. 전문강사, 봉사자, 보조강사, 후원자 등등.

〈표-1〉 통일,안보관련 거버넌스-통일부 등록 NGO 현황

시민단체명	대표자	안보교육관련 연계사업	회원수
북한인권시민연합(사)	윤현	남북출신 청소년 문화교류프로그램	500여명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사)	설용수	학교통일교육실태와 방안	120여명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경석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청소년 통일교실	3만7천여명
통일교육문화원	이성구	북한이탈주민 안착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1만1천여명
한국통일진흥원	김학옥	통일안보홍보 및 교육	6400여명
평화운동연합(사)	장성호	남북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5천여명
탈북여성연대	강수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화합	250여명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한민족통일족네트워크 구축사업	1300여명
남북나눔(사)	박중순	연해주고려인의 생활정착	1200여명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이재운	평화통일기원 자전거 대행진	35만여명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터	김남열	사회통합과평화운동-탈북자지원사업	180여명
선진통일교육센터	도희윤	북한어린이 생활체험과인권 통일교육	120여명
남북민간교류협의회(사)	김승균	남북청소년평화통일:미술전시회	200여명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임동원	청소년 통일교육활동증진 교재개발	3만2천여명
통일준비네트워크(사)	김영운	청소년 통일체험교육	2200여명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김봉찬	새터민가족의 통합적 지원:가족역량강화사업	100여명
NK 지식인연대	김홍광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선진화시민교육	230여명
(사)한미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 (외교통상부등록)	황주환	625 60주년 Thank You21	100여명
(사)한미친선좋은 친구협회 (외교통상부등록)	이경재	부한미군모범장병 부모초청문화교류	150여명

6. 통일방송구축

국군의 방송, 통일교육방송, 평화통일 방송 등에 인기 연예인을 출연시켜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안보교육에 접근하도록 한다.

7. 통일지수개발

국민들이 국가의 안위와 평화—전쟁, 통일국가비전, 안전과 위기, 안보 등 과 관련한 100문항의 지문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통일, 안보와 통일교육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정도를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0을 척도로 예컨대 90이상이면 통일의식 높고, 60이하이면 결여되었고 40이하면 위험하거나 위기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통일콜센터

안보와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시 다산콜센터벤치마킹) 파트타임으로 통일전문가 항시 대비하여 일반시민들에게 통일의 궁금증을 답변해준다.

9. 국가위기관리 및 통일국가지 메뉴얼을 인터넷에 소개

전국 어디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 각종 부처와 지자체 홈페이지 사이트에 메뉴얼을 팝업창이든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로 등록한다.

위기나 전쟁발생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이 대처할 수 있는 통일국가와 위기관리 메뉴얼을 재정비하여 인터넷에 수록한다.

10. 결론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부문에 대한 교류와 동시에 첨단 국방력 강화 수행이 필요하다. 625전쟁이후 걸으로는 평화를 가장하고 안으로는 핵실험, 핵개발을 하는 북한의 이중성과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시민들에게 통일교육을 통해 그 실상이 전달해야 한다.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굶주림, 3대세습체제, 북핵개발의 위험성 등 잘못된 점들이 교육에서 전달되지않으면 사회통일교육은 실패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중심의 학교 교육과 병행하여 학부모중심의 가정교육, 시민사회중심의 지역사회교육 등이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달자인 통일해설사, 통일가이드, 통일교사, 통일강사, 통일교수 등이 우선적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인식,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교사나 일부시민단체의 종북좌파적인 통일관, 안보관이나 북한관이 시정되어야 사회통일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다. UN군의 도움을 받은 국가로써 글로벌 통일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통일과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스마트한 미래의 통일한국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할 것이다.

사회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2

허문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 진행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三不難(국제 불만, 남북 불신, 국내 불화)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능력만 있다면, 3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풀어 내야한다. 그러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해결해야 한다. 그 순서는 국민화합, 국제협력, 남북화해 순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내부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여년 진보 정부하에서의 통일교육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난 3년 반 보수 정부하에서의 통일교육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민화합 속에 통일미래를 준비하려는 오늘 회의는 얽혀있는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김영수 교수의 발표문은 오랜 시간의 통일교육 현장경험과 1년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훌륭한 논문이다.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와 더불어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안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역작이다. 특히 교육효과 매뉴얼, 교육내용 전달 매뉴얼(강사 역할), 교육시간 활용 매뉴얼은 지금 당장 모든 사회통일교육 강사 및 운영자들이 참조해야 할 내용이다. 토론자부터 유념하고, 활용할 것이다.

이상근 회장의 발표문 또한 경남지역 통일교육센터에서 지난 6년 동안 진행해 왔던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실천적 글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통일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이데올로기적 대립 현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사심없는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애를 쓰시는 현장 통일교육위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다. 토론 이전에 통일동역자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드린다.

그동안의 사회통일교육은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북한실태 교육은 북한 실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북한과 통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북한주민과 더불어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일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교육 또한 좌·우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 속에서 갈등만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통일역량만 약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고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한편, 통일의지를 제고하여 통일대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일비전 및 통일 미래상에 대한 객관적인 통일교육 방향을 준비하는 필요하다. 통일교육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토론자는 「통일연구원(KINU) 통일교육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10가지 주제(사회통일교육, 통일교육 콘텐츠, 언론의 역할 등)를 중심으로 10회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 23명을 비롯해서 토론자, 공동연구위원 포함 총 86명 참여했다. 포럼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같은 건의와 오늘 두 분 발제자의 제안을 잘 수용하여, 향후 통일교육원 교수와 통일연구원 박사들이 협력하여 사회통일교육 표준 강의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사회통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우리의 숙원 평화적 민족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것으로 기대한다.

○ 통일교육의 방향

- 평화와 안보,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 통일교육 외연확대 필요(변화된 시대상황 반영, 다양한 의견수렴)
- 맞춤형 통일교육 전개
- 통일정책과 교육은 분리해야
- 사회통일교육 지침서 개발
- 신조어 개발 또는 통일교육 용어의 교정
- 역사교육(분단사, 남북관계사), 통일철학 등을 강조해야
- 독일통일의 경험 강조
-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북한이탈주민 포함) 현상 소개

○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기존 통일교재가 어렵다
- 표준화된 콘텐츠가 필요(수강자들의 혼란 극복)
- 피교육생들의 참여부족, 강사진의 자질 향상
- 강당형 통일교육, 관 주도 교육방식 배제
- 통일교육 용어 사용 배제(시민단체의 강한 거부감)
-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진보단체 배제
- 통일교육과 안보교육 구분해야
-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구성(통일은 왜 해야하는가)
- 온라인을 통한 웹 교육의 활성화 도모

○ 통일비전, 무엇을 제시해야 하나

- 통일세를 왜 내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통일된 국가의 미래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북한실상 교육의 지나친 강조는 통일거부감 초래
- 젊은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비전 제시
- 대중참여 프로그램 개발
-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선택의 문제

사회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3

신희선(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 심포지움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통일교육”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두 편의 논문은 그동안의 한국사회 통일교육의 현실과 현장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통일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과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2009년에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신문보도자료를 보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일보가 ARI, EAI와 공동으로 2005년과 2010년에 실시한 ‘국민정체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9%에서 19.3%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17.4%에서 10.4%로 줄었고,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30.4%에서 21.6%로 높아졌다.¹⁾

둘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통일론 재구상> 학술회의에서, “통일 보다는 평화를 더 보편적 가치로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 관련 사회의식은 전환기에 있다. 기존의 통일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약해지고, 평화와 통일을 각각 구분해서 보는 등의 인식 변화를 이제 우리 사회가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²⁾는 주장들이 나왔다.

셋째, 통일교육원이 2011년판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를 발간하면서 “국민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과 안보관,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1) “2010 한국인 그들은 - ARI, EAI, 중앙일보 ‘국민정체성’ 조사”, <중앙일보> 제14269호, 8면.

2) 천인성, “한반도 통일론 재구상” 학술회의”, <중앙일보> 14202호, 29면, 2010.9.14.

록” 하기 위해 새롭게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의 6.25남침이 수록” 하였고, “후계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3대 세습과 관련해 비판적인 서술” 을 포함한 통일교육이 강조되었다.³⁾

이처럼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일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과 검토,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두 편의 논문은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동사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보다 나은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두 논문에 대한 공감과 질문

가. 김영수 교수,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의 역할과 활동제고 방안”

발표자가 지적한 바처럼,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치고, 실제로 통일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언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의 양적 지표중심의 평가와, 또한 “정부 정책을 잘 홍보했는지” 여부가 통일교육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지적 역시 향후 통일교육의 질의 측면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발표자는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 공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통일교육의 ‘내용’ 과 관련한 부분이다.

발표자는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표준 콘텐츠를 요청” 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화와 담론 형성과정으로서의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일정한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지적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논의에 머물러 있다.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을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여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콘텐츠’ 를 만들어 갈 여지가 있는지, 진보와 보수시민단체들과 여야간에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현저한 시각 차이를 좁히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 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가 합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이영중, “통일교육, 물러서지 않은 현인택”, <중앙일보> 제14442호, 10면, 2011.6.28.

두 번째 질문은, 통일교육을 담당할 ‘인적자원’의 측면이다. 발표자는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는 보완이 필요” 하고 참여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고,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응답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을 활용” 할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터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통일교육원에서 현재 추진중인 ‘눈높이통일교실강사반’의 경우 4주(20일)동안 144시간 교육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통일교육전문강사’로 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짧은 시간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통일문제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좋은 강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창의적인 교수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역량 역시 짧은 시간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교육내용을 재충전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교수법을 적용하여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나. 이상근 회장, “사회통일교육의 사례와 개선 방향”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는 실제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해 온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 평가하며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제안을 해주었다. 지난 6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참여 시키는 문제와 수강생들의 인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참가자의 동기부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특히 체험학습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제한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나열식으로 여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러 통일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보다 높은 분야를 집중,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꾸러가는 입장에서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통일교육 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체험학습이었고, 남북출입사무소, DMZ 및 GP 현장과 판문점, 대성동 마을 등을 견학하며 깊이 있고 종합적인 통일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 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적 효과는 읽은 것(10%), 들은 것(20%), 본 것(30%), 보면서 들은 것(50%), 발표와 토론 등 말한 것(80%), 행동한 것(90%) 순으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스스로 판단과 통일의 문제를 사고하게 하는 교육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꾸리는 입장에서 참석자들의 각각의 반응은 어떠한지 질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떤지 궁금하다. 또 앞으로의 지역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듣고 싶다.

두번째 질문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원의 기능을 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고 언급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보수교육)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정부가 출연하는 ‘통일교육진흥원’ 은 대국민 통일교육활동 및 통일의식 관련 실태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 하고, 이는 나아가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하나센터 등을 관장하는 법인 형태 “로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충분한 검토 결과 전향적으로 제안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기구의 신설과 제도의 개편이 득이 될지 득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교육에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분리와 통합의 과정에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율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각 기관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표자가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구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 현실적인 이유와, 그럴 경우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부연설명을 듣고 싶다.

3.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짧은 생각

두 분의 논문을 읽으면서 평소 통일교육에 대해 생각했던 바를 4가지 측면에서 나누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일교육은 ‘언론’ 의 역할이 사실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교통일교육과 큰 차이가 있다면, 사회통일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받는 청중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컴에 보도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남북한 문제,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언론의 태도가 시민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은 크다. 결국 정부가 남북한 관련한 사실에 대해 정확한 팩트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느냐, 또한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믿느냐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사회통일교육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특성상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결국 1차적인 사회통일교육은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신뢰할 수 있는 층을 확보하는 일이다. 나아가 일반대중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정책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거나 대립각을 세우는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서, 남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언론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통일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일교육의 측면에서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교육콘텐츠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원에서 준비한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일반 대중들이 부담없이 받아들이는 ‘영화’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다. 영화가 상상력과 허구의 산물이지만, 남북한 대치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새삼 인식시키고 다양한 상징을 통해 문제를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관련 텍스트라는 인상을 주는 통일교육 자료들을 넘어 대중문화 속에서 생산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북한 현실을 생각해 보고 참가자 스스로 통일관을 정립하도록 내적인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어 참석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풍산개>⁴⁾나 <경계도시>⁵⁾ 등의 영화나 다큐멘타리도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사는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배

4) 김기덕 기획, 전재홍 감독의 <풍산개(2011)>는 분단을 소재로 적대적인 남북한 관계를 풍자하면서도 드라마에 멜로와 스릴러, 코미디까지 담겨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서의 영화의 역할을 하는 대중적인 작품으로 최근 상영되고 있음

5) 홍형숙 다큐멘타리 감독이 오랜 시간을 두고 연속해서 찍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남북한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기록한 <경계도시(2002)>, <경계도시2(2010)>를 말하며, 권해효, 박원순, 우석훈, 김이환 등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가 서포터로 나선 영화임.

제1주제 : 사회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우도록 격려한다, 상호협조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교수법을 활용한다, 모든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⁶⁾ 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이 가져온 비극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보다 나은 삶과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 통일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성찰하게 하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세째, 통일 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lecturer 보다는 Facilitator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현장은 교수 중심의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보와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수자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촉진자’ 로의 역할 변화를 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육도 참여자의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참여자들이 관련 지식들을 단순히 듣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지 의문이다. 강사의 일방적인 교육으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고 반복적인 내용으로 여겨져 지루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참가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통일교육 내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실제 남북관계 전반의 실상이나 시사적 쟁점에 대한 이해,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인물 등에 대한 정확한 북한 실상에 대한 파악과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에 대한 통찰, 통일방안 등과 관련하여 방대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맞춤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에 강연이나 강의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청중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통일의 문제에 대한 생각의 물꼬를 터주고 심층적인 이해를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FT가 이끌어가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넷째, 통일교육을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김영수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북한 문제에 협소하게 천착하기 보다는” 개방적 다원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미래 의제들과 연관 지어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인권, 정의, 다문화, 행복 등의 주제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정치적 관용과 타자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 행복한 공동체 등의 가치와 접목시키는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멘토링과 코칭의 측면을 통일교육에도 접목해

6) Arthur J. Cropley(2001), *Creativity in Education and Learning - A guide for teachers and educator*,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공역, 『창의성 계발과 교육』, 학지사, 2004, 240-241쪽.

볼 필요가 있다. 이상근 박사님의 발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 무료 법률지원 및 멘토링 사업을 추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과 사업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협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작업이 필요하다.

4. 나오는 말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사회통일교육은 ‘관변단체가 국가지원을 받아 동원된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것’으로 오도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하는 힘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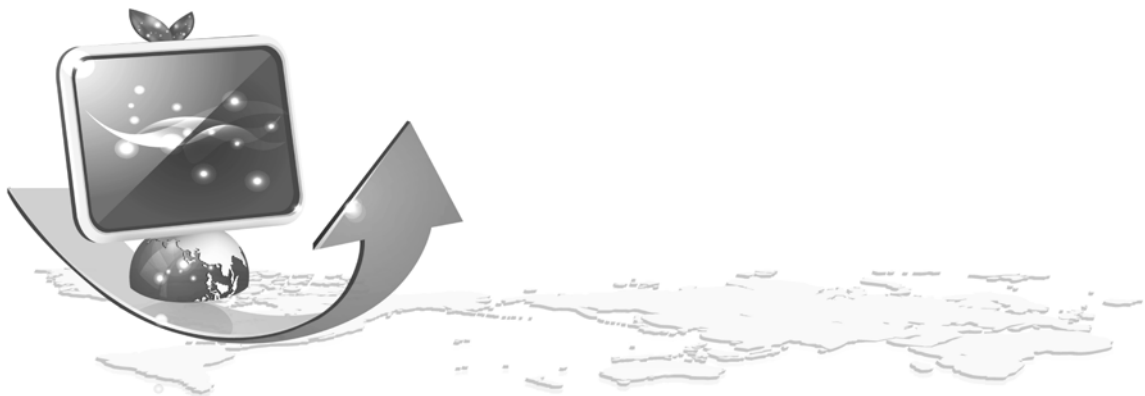
‘통일’ 문제가 정치인들이나 이산가족들의 관심사이지, 실질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현실에서, 혹은 통일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실제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안보교육, 반공교육의 측면으로 통일교육이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거나 대북적 대감을 고취시키거나 감상적으로 통일 문제를 생각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통일문제를 사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적, 정권적 차원의 통일 교육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차 우 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들어가면서

I

과거 학교 행사 시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곤 했다. 그 당시 통일은 일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청소년에게 있어서 통일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 큰 의미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통일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사회 모습도 제대로 그려보지 않으며,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통일 가능성은 점점 더 요원해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며, 통일교육은 바로 이런 통일 관련 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예방해보고자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과 접근이 필요할까?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의미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의 통일교육이 처한 현주소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향후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전적 기초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교육기관은 학교통일교육기관과 사회통일교육기관으로 구분되고, 학교통일교육의 활동 영역은 교과교육 활동과 교과외교육 활동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통일교육 활동 중 교과교육 활동, 즉 학교 교과교육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과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²⁾.

1)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교육에서 교과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교육 활동이 교과시간으로 배당되어 있고,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이루어지는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과를 통한 학교통일교육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과별, 학교급별로 구성된 교과과정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대부분 교육활동은 교과과정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지도 방향 II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이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는 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목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등을 정립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하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 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 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20011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10).

미래의 통일 모습과 관련하여, 과거 우리는 남북관계의 특수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한 경향이 있었다. 즉, 통일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우리는 통일의 이념과 체제의 특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중간 지점 정도로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미래의 통일은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 및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야 하며, 미래 선진 한국 창조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안보관과 균형있는 북한관을 확립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

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는 우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기초는 국민의 건전한 안보관에 달려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장차 민족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로서 인식하는 한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관점 등 균형 있는 북한관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안보 의식 약화에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예로, 일부 친북성향의 인사들은 남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평가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우리 정부나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편견 극복은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감싸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위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2. 통일교육의 지도 전략

통일교육의 지도 전략은 상호 불신과 편견 극복, 각 교과목의 특성 반영과 연계적 접근, 통일 내용의 각종 평가에의 반영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국민들 간에 상호 불신과 편견 극복,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회복, 상호 이해와 협력 의지 강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 과거 반공(反共) 교육기의 남한과 북한의 정치와 교육은 상호 이해와 신뢰보다는 상호 불신과 반목, 그리고 적대감 등을 조장하며 고착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상대의 행복은 그 만큼의 나의 불행이다.” 라는 증오와 적대의 패러다임(paradigm) 속에 있었으며, 이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콤플렉스(red complex, blue complex)를 형성시켰다³⁾.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은 한편으론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콤플렉스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실 남북한의 ‘상대에 대한 교육’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상호 불신과 편견을 조장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의 경우, 민주주의, 시장 개념, 개인주의, 보편적 가치 등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비민주적 체제와 이념에 대해 비판하는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집단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등에 기반을 둔 정치사상 교육을 중심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교육’을 고취해 오는 있다.

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육과정 시기별 통일교육 내용의 변천

교육과정	고시연도	통일교육 내용 특징
제 1 차	1954	반공교육(방공, 멸공, 승공, 지공, 이데올로기비판교육 등)
제 2 차	1963	
제 3 차	1973	
제 4 차	1981	
제 5 차	1987	통일·안보교육
제 6 차	1992	통일교육 (민족화해협력교육, 민족동질성회복교육, 평화교육 등)
제 7 차	1997	통일교육(안보교육, 평화교육 등)
	2007개정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2011개정 교육과정	

둘째, 통일교육은 각 교과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운영한다. 한 예로, 도덕과 통일교육의 경우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도덕과 통일교육의 기본 성격을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성찰을 강화하였다.

윤리학적 성찰은 도덕과 수업의 기본 접근의 하나로 통일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과정(도덕적 주체로서의 통일 문제 인식 등)을 중시한다. 그리고 특수 상황 논리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추종자로서의 교육만이 아닌 지도자 내지 주체로서의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고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학습자는 한 교과만 학습하는 것이 여러 교과를 동시에 듣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시 여러 교과 간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상호 연계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에 있어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도 단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계가 있듯이, 통일교육도 통일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아래 표와 같다.

단계	통일교육 접근
1단계	북한에 대한 편견 극복, 교류와 협력 증진 ➔ 객관적 이해 및 적대감 해소, 상생의지의 강화
2단계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의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 안보와 평화의 동시적 추구
3단계	민족애에서 애국심교육으로 ➔ 다문화가족의 국가정체성 및 통일의지 강화
4단계	미래지향적·보편적 가치 추구 ➔ 사회통합 및 선진통일 한국의 건설

다섯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국가 고사 및 평가에의 반영(대수능, 교원임용고시 등)과 통일 관련 내용의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퀴즈대회, 토론회, 논술대회 등)과의 연계적 접근도 생각해볼 수 있다. 평가에의 반영과 관련해서 평가 만능주의의 폐해는 인정하지만, 평가의 효과적인 활용은 목표 수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한 시험에서 통일교육 내용의 포함 여부는 통일교육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 내용의 대수능에의 포함 여부에 따라 통일교육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순수 단일 혈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동화(assimilation)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 통합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과 다문화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현황

III

‘2007개정교육과정’의 각 교과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은 어떤 특징과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대부분 교과시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교과과정에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영역과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들 중 통일교육의 올바른 접근 내지 지향에 맞지 않게 된 점은 무엇인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

1. 교과별 지도 방향⁴⁾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지침서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학교급별, 교과별 통일교육 지도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 초등학교의 교과별 지도 방향 개요

- ①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학습과정의 고려
- ② 남북 관계의 변화 상황에 맞추어 통일교육 실시(계기 고려)
- ③ 통일교육 자료의 정확성, 시사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
- ④ 개념이나 기능중심보다는 상황(또는 생활)이나 합리적인 가치 중심으로 접근
- ⑤ 인지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적 접근을, 당위론적 접근만이 아니라 공리주의적 접근을
- ⑥ 북한주민에 대한 공동체의식, 북한 언어와 역사와의 동질성 인식
- ⑦ 분단의 과정 이해, 통일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 ⑧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정서적 접근의 필요성)

4) 이 자료는 통일교육원에서 2010년에 발간한 ‘2011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 기초하여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위에서 제시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교과 지도방향 개요 중 ①, ⑤, ⑧은 방법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제시된 것이고, ②, ③, ④, ⑥, ⑦은 내용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초등학교 도덕과

- ① 북한주민에 대한 민족애
- ② 북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상생공영의 존재 & 안보위협 존재)
- ③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
- ④ 민족 분단 배경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 이해, 분단극복의 필요성, 학생 수준에서의 통일을 위한 노력
- 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통일의 효과’ 이해
- ⑥ 각자가 꿈꾸는 통일의 모습 상상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 ⑦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을 통해 통일 대비 및 통일 노력의 필요성
- ⑧ 남북한 사회 통합의 예비실험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교과 지도방향 개요에서 제시된 내용은 방법적인 차원과 내용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초등학교 도덕과에 제시된 통일교육 지도방향은 주로 내용적인 차원의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교과 지도방향은 주로 교과 일반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덕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도덕과 지도방향 중 ‘민족 분단 배경’,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내용이며, 중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 분단의 배경’은 사회과(역사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교과의 특성상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2) 초등학교 사회과

- ① **지리** 영역에서는 북한의 자연·인문·지리적인 특성을 이해시키고, 남북한이 서로의 자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통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아울러 남과 북에 있는 옛 도읍지, 문화재, 유적 등을 알아보는 활동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었음을 인식하게 한다.
- ② **역사** 영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6.25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와 경제발달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민족의 저력과 국가의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한다. 아울러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평화통일 달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 ③ 특히,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과정, 38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④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전개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한반도 분단을 국제 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민족 내부적 요인과의 관련성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 ⑤ 단일 정부 수립 노력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뒤,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발전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통일과정에서도 견지해야 할 기본적 가치임을 깨닫게 한다.
- ⑥ 6·25전쟁 이후 남북 관계는 갈등·대치의 역사와 화해·협력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우월한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진행시켜 왔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강경·도발 조치를 계속하는 등 아직 남북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 ⑦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위상 변화가 통일의 한 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은 한반도 통일이며,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청소년들의 소명임을 주지시킨다.

위에서 제시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사회과 지도방향 중 지리와 역사 영역은 별도로 지도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나, 일사 영역은 생략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일사 영역은 역사 영역 속에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역사 영역 중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과정, 38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 등’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전개되는 과정을, 한반도 분단을 국제 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기’ 등은 중등 과정에서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과 관점이 가르쳐져야 할 경우에는 교과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영상 자료 등)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나. 중학교의 교과별 지도 방향

‘2011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교육원, 2010)에 제시된 중학교의 교과별 통일교육 지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도덕과

- ①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단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남북한 분단 체제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당연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한다. 이와 반대로, 통일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알아보게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킨다.
- ②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통일 편익과 분단 비용 간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부분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통일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준다.
- ③ 북한과의 현실적 대치 관계와 이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상생·공영의 상대로서 북한을 인식해야 함도 이해시킨다.
- ④ 북한에 대한 이해는 중학생들의 관심 부분인 북한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전반적 특성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평가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인권 실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으로 이어지게 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되, 북한 주민을 이질적인 존재로 느끼거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⑤ 경제난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시장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 모습도 변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점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물질 중심의 개인주의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 ⑥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한다. 남북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⑦ 우리 민족이 원하는 통일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성찰해 봄으로써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알게 한다.
- ⑧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모색하게 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도 생각해 보게 한다.
- ⑨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통일을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통일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통일노력을 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며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즉 통일한국의 이상적인 미래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려보게 한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의 통일교육 교과 지도방향 개요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중학교의 통일교육 교과 지도방향도 주로 교과 일반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덕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된 중학교의 통일교육 도덕과 지도방향은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도덕과 지

도방향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하다⁵⁾. 물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내용이 나선형 교육과정 형태로 구성됨으로써 학생들이 배우는 통일교육 내용이 반복되고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내용의 중복에 의한 학습 흥미 저하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난이도 높은 내용 선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2) 중학교 사회과

- ① 중학교 사회과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실상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한다. 이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통일 한국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 ② **지리** 영역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세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또한, 북한 접경지역 등의 지리적 의미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시키고 북한 지하자원의 분포 등을 알게 함으로써 통일 이후 바람직한 국토 공간의 모습과 산업·교통의 발달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 ③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정부 형태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킴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역사** 영역에서는 8·15 광복과 정부수립, 분단과 6·25전쟁,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과정 속에 통일 문제를 연결하여 이해시키는 한편, 통일 문제를 현실의 삶과 연관시켜 설명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의식을 기르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과정, 38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전개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한반도 분단을 국제 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민족 내부적 요인과의 관련하여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 ⑥ 단일 정부 수립 노력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뒤,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발전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통일과정에서도 견지해야 할 기본적 가치임을 깨닫게 한다.

5) 단,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침방향과 달리, 중학교 통일교육 지침 방향에서는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의 길 모색’이 포함되어 있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⑦ 6·25전쟁 이후 남북 관계는 갈등·대치의 역사와 화해·협력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각의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던 역사적 사건들을 탐구해 보도록 한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우월한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진행시켜 왔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강경·도발 조치를 계속하는 등 아직 남북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⑧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위상 변화가 통일의 한 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은 한반도 통일이며,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청소년들의 소명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중학교의 통일교육 사회과 지도방향은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사회과 지도방향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하지만, 초등학교와는 달리 ‘일사 영역’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사 영역의 통일교육 지침방향 제시가 매우 부족한 편이며, 제시된 일부 내용마저도 도덕과와 차별화된 지침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과는 이념과 가치의 정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사회과는 인지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는 남북한 간 정치와 법, 경제, 사회, 문화(예술, 영화 등), 지리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남북한 통합교육 내지는 통일교육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고등학교의 교과별 지도 방향

1)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요

① 고등학교에서는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일 문제를 종합적·체계적·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습득한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토대로 통일 문제를 한반도라는 시각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정세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통일과정과 그 이후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의 통일 문제를 수업 상황에서 함께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일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탈북자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문제의 실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 후에 나타날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③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이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교과 지도방향 개요는 내용적인 차원의 접근과 방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잘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고,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과 지도방향 개요와도 차별화되어 대체로 잘 제시되어 있다.

2) 고등학교 도덕과

- ① 통일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알게 하고, 국가안보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세계화 시대 바람직한 민족공동체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 도모는 물론이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하기 위하여 자유, 민주,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합의를 추구하고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사회구성원(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문제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이고 통일의 예비 실험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위에서 제시된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도덕과 지도방향은 중학교의 통일교육 도덕과 지도방향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하나, 세계화와 국제사회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3) 고등학교 사회과

- ① 사회과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판단력의 신장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등을 관심분야별로 집중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일이 남북한 사회와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변화된 통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은 무엇인지,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 정치 교과 〉
- ① 분단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살펴보고 통일의 당위성을 논의하여 봄으로써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한다.
 - ② 국력 낭비 해소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문화의 발전, 인도적 차원의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문제 해결, 세계 평화 등과 관련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통일 문제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시킨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도록 한다.
- ④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 이를 외국의 통일 사례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 ⑤ 통일의 장애요인과 통일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통일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탐구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충분한 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할 경우 우리 사회에 혼란이 뒤따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 한국사 교과 〉

- ① 한국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종합적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적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과정, 38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②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전개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한반도 분단을 국제 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민족 내부적 요인과의 관련하여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 ③ 단일 정부 수립 노력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뒤,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발전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이는 앞으로 통일과정에서도 견지해야 할 기본적 가치임을 깨닫게 한다.
- ④ 6·25 전쟁 이후 남북 관계는 갈등·대치의 역사와 화해·협력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각의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들을 탐구해 보도록 한다.
- 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우월한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진행시켜 왔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강경·도발 조치를 계속하는 등 아직 남북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 ⑥ 냉전체제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 안보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키며, 변화된 통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⑦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위상 변화가 통일의 한 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은 한반도 통일이며,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청소년들의 소명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사회과 지도방향은 초, 중학교의 통일교육 사회과 지도방향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의 통일교육 지침방향은 중, 고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과 거의 중복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는 중학교 ‘역사 분야’의 지침방향 내용과 거의 중복된다.

지금까지 학교급별, 교과별 통일교육 지침방향 내용은 대체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 교과 간 학문적 특성의 고려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 지침방향을 제시할 때는 학교급별 및 교과별 차별화를 강화하고, 내용적 차원과 방법적 차원이 잘 통합된 형태로 해야 한다.

2.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내용 분석 및 문제점

김찬희 교사(2010)에 의하면, 학교통일교육 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교사들의 가치관에 따라 통일교육의 양과 질이 현격히 달라진다는 점,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북한 문제나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해 가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 교육 후 그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동족 간의 비극적인 과거사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에 의존하여 교과 수업을 전개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들이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해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현행 초, 중등 도덕과 및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도덕과 교과서 내용 분석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6학년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학기	내용 요소	내용 분석
3-2	3.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3-2.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 배경 -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해설서에서는 “민족 분단의 배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분단의 배경을 가르치되 역사적 사실의 이해보다는 분단 배경에 대한 도덕·윤리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p>단으로 인한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p>적 성찰을 해보는데 중점을 둔다.” 고 서술하고 있으나, 역사나 일사 분야에서의 분단의 배경과 큰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p> <p>특히,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 배경’ 은 초등학교 3학년 도덕과에서 다루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p>
4-2	<p>3.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p> <p>3-2.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 효과 등 통일의 필요성 찾기 -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 민족 통합을 위한 우리의 자세 	<p>북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을 다루는 것은 학습의 순서상 적절치 않다. 5학년의 통일교육 내용과 서로 바꾸어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p>
5-2	<p>3.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p> <p>3-1.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기 -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와 협력 방안-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 하도록 돕는 방법 	<p>생활 중심 접근으로 북한 동포 및 새터민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새터민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은 적절해 보인다.</p>
6-2	<p>3.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p> <p>3-2.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가 -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설정 	<p>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나 미래상을 가르치는 것은 교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다양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 결과들을 학생들 스스로 판단해 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그런데,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과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은 초등학생에게 지도하기엔 다소 어려운 주제이다.</p>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 배경’,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다루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주제라고 보여진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은 중등 과정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오

는 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단원에 속한다.

따라서, 이런 단원 대신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초등학교 북한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가치관’, ‘북한의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사람들의 문화(가치관)’ 등이 좀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7-10학년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내용 요소	내용 분석
8	3.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3-1.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민족 공동체와 남북 분단의 배경 - 이산가족 등 남북 분단으로 인 우리 민족의 아픔 -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 은 있으나, 현재 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 는 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거의 없다.
8	3-2. 북한 주민과 민족애 -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 -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 민족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의 의미	북한 이해는 시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 어 왔다. 반공교육기에는 북한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통일교육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최근 이 명박 정부에서는 보편적인 인권과 민족애 차 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 이해에 중점이 주 어지고 있다.
8	3-3.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 민족의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 극 복을 위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 - 새터민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 제점과 해결 방안 -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	통일의 주체는 민족 구성원 모두임을 알고, 서로 같음을 발견하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 은 통일의 주체를 다소 제한적으로 만든다는 오 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의 통 일 노력’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0	3. 국가와 민족의 윤리 3-1. 국가와 윤리 - 국가와 국가안보	국가 공동체의 존재 근거를 이해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억압 당하지 않 도록 국가 권력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국가 권력이 남용되었을 경우 - 자율적 개인의 권리와 국가 공동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책무 	<p>음을 알고,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국가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상호적인 측면에서 다룬다.</p>
10	<p>3-2. 민족과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시대의 민족의 정체성과 기능의 변화 - 통일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민족에 -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에 의한 한민족 공동체의 긍정적 역할 	<p>세계화와 다문화가 진전된 오늘날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역할에 변화가 있음을 이해하고,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를 넘어 보편성과 특수성이 조화를 이룬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p>

통일교육은 오랜 세월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통일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에는 통합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포함된다. 또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한다면 어떤 고정화된 정치·경제 체제 보다는 미래의 통일세대들이 양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장점을 결합시켜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교 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적 현실과 통일 정책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어서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과 유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향후 학교 통일교육은 나의 삶과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서 분단과 대결의 그림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문화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찬희, 2010).

현재 학교 통일교육의 안보관은 보다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군사력에 기반을 둔 국가안보 중심주의에서 환경, 경제, 복지, 인권, 평화를 포괄하는 인간 안보 개념으로의 확장이 그것이다. 물론 인간 안보, 즉 공동의 안보 개념으로의 확장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보충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나. 사회과 교과서 내용 분석

1)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통일교육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통일교육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내용 요소	내용 분석과 특징
4	<p>[지리 영역]</p> <p>2. 여러 지역의 생활</p> <p>2-2. 산간 지역의 생활</p> <p>- 개마고원 지역의 생활, 백두산, 금강산 내용 서술</p>	<p>북한의 지형과 생활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북한의 지형과 생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p>
5	<p>6.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p> <p>-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분단과 6.25전쟁</p> <p>-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p> <p>-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p> <p>- 대한민국의 발전, 평화통일,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p>	<p>8·15 광복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통일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를 알아낸다.</p>
6	<p>1. 아름다운 우리 국토</p> <p>-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적 특성(지형, 기후 등) 이해</p> <p>- 북한 지역의 자연·인문 지리적 특성</p>	<p>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영역, 산맥, 하천 등의 지형에 관련된 자연재해 등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지만, 북부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물 환경에 대한 주요 사실, 생활모습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p>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문제를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외국의 통일 사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접근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2) 중등학교 7-10학년 사회과 통일교육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7-10학년 사회과 통일교육 내용과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내용 요소	내용 분석과 특징
9	3.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 - 분단의 배경과 통일을 위한 노력 - 통일 한국의 미래 - 민족의 통일방안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북 교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부분이 미흡하다.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역사 영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 영역에서의 비중이 매우 약한 편이다. 또한 지리적 공간을 토대로 역사, 정치와 법, 사회와 문화, 산업, 관광, 인구, 군사 등의 주제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으로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려야만 학생들 자신이 통일의 주체로서 통일 문제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수 있다.



학교급별, 교과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IV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학교급, 교과별 통일교육 지침방향(2010년)과 2007년개정교육과정의 도덕과 및 사회과 교과서 내용 분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통일교육 지침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지침의 통일성 부족

학교급 간, 교과 간 지침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첫째, 통일교육 지침의 개요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는 생략되어 있다. 둘째,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침의 경우 사회과에서 지리와 역사는 있지만 일사의 지침이 빠져 있다. 셋째, 교과가 도덕과와 사회과에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교과들의 경우 마치 통일교육과 무관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또한 사회과 중에서도 일사 영역과 지리 영역에 대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교과 지도 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란 쉽지 않다. 넷째, 개요와 교과 지도 방향의 내용 중복, 교과와 교과 간, 그리고 학교급 간 지도 방향의 내용 중복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침들의 통일성을 기하고, 교과와 교과 간 그리고 학교 급간 지도 방향의 내용 중복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공통적인 지침과 교과별 특성,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좀 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지침 내용 반영 미흡

최근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나아감에 따라 순수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강조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⁶⁾.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육에서 민족애,

민족공동체의식 형성, 남북한 간의 동질성 회복 등 민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한편으로 통일의 근거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 가정과의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 통합 방식의 하나로 다문화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를 고려하고, 민족애를 애국심교육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 헌법에 기초한 통일 이념 미흡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에 대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⁷⁾. 우리의 통일 이념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근거해 설정해야 하며, 이는 여러 이념 중의 하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념의 하나로 인정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는 고등학교 통일교육 지침방향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안보와 평화의 조화 미흡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여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유지·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지침서의 언급은 적절한 주장이다. 하지만, 안보(peace keeping)를 평화의 선행 조건만으로 언급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의 관계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본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 평화(peace making)가 안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에 대한 신뢰와 상생·협력관계가 발전된다면, 안보 또한 튼튼하게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지침방향의 하나로 ‘안보와 평화의 조화’가 추가로 언급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7) “생명 그 자체의 본성이 자유이고, 자유 속에서만 창조와 진보·행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범해선 안 되기 때문에 법치(法治)가 필수적이다.”(박세일, 2011. 4. 26).

8)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도덕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학생들의 발달 단계 고려

통일교육은 국가·민족 차원의 다소 관념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다. 따라서 주제 자체가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학습의 계열상 특성을 잘 반영하지 않으면 학습의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한 예로,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 배경’,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은 초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학습하기엔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은 중등 과정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단원에 속한다.

2) 사회문화적 접근의 강화

과거에 비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적 현실과 통일 정책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어서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과 유리되어 있는 듯하다. 향후 학교 통일교육은 나의 삶과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서 분단과 대결의 그림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문화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분단의 배경’과 같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의 내용보다는 ‘초등학교 북한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가치관’, ‘북한의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사람들의 문화(가치관)’ 등 사회문화적 접근이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 내용이 좀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도덕과와 사회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지고, 학습자 중심에서 통일교육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과정(process)으로서의 통일교육과정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한다면, 어떤 고정화된 정치·경제 체제를 강조하기보다는 미래의 통일세대들이 양 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양 체제의 장점을 결합시켜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통일의 주체 내지는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주는 학교 통일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안보교육을 강화하되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통일교육기에 들어와, 반공교육기와는 달리, 민족화해협력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 등이 강조되면서 안보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핵무기 개발과 지속적인 대남 군사적 도발 등 북한 정권의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국가 안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측면의 안보라는 협의로 사용할 경우, 반공교육기의 우릴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 통일교육의 안보관은 보다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군사력에 기반을 둔 국가안보 중심주의에서 환경, 경제, 복지, 인권, 평화를 포괄하는 인간 안보 개념으로의 확장이 그것이다. 물론 인간 안보, 즉 공동의 안보 개념으로의 확장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보충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나. 사회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국제적인 관점과 비교 정치적 관점 강화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문제를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외국의 통일 사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접근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2) 역사 위주에서 지리 영역의 강화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역사 영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실 사회 위주의 지리 영역에서의 비중이 매우 약한 편이다. 또한 지리적 공간을 토대로 역사, 정치와 법, 사회와 문화, 산업, 관광, 인구, 군사 등의 주제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으로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생들 자신이 통일의 주체로서 통일 문제에 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통일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V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 통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1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지침방향과 2007개정교육과정의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교과과정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교육 적 노력과 접근이 필요할까?

첫째,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사람의 통합)을 유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합으로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기의 학생들부터 서로 ‘하나됨’ 을 느끼는 민족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 교과교육은 과연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서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민족 정체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들 간에 잔존해 있는 상호 불신과 편견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남북 통합은 민족 구성원들 간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상대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수용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한 간에는 6.25전쟁과 같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들로 인해 상호 불신과 편견들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 교과교육은 과연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상호 불신과 편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반편견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남북의 공통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남북한 간에는 오랜 분단 과정 속에서 언어의 이질화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이질화가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족동질성회복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남북한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한 간에는 오랜 분단 과정 속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화 내지 차별화가 이루어져 왔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성을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학교 교과교육은 남북한 사회와 문화의 획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북한 당국의 폭력적이고 퇴행적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주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와 이념으로 통합되어야 한다⁹⁾.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며,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하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 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 교과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도 원칙을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교과과정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으로 보편성, 통합성, 상호성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편성의 원리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개인적 자율성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여야 한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은 자유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이념으로 그 위상을 확보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시키고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주의도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9) 진정한 민족 통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서 통일은 남북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기울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정치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또한, 통일교육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왜곡을 바로 잡고,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립에 기인한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각종 제도와 관행을 제거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모두에서 각 개인의 자유와 인권, 사랑, 정의, 관용,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개인적 자율성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통합성의 원리이다. 통일교육은 정치적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명분만을 쫓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발전과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일관되게 잡아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은 지금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 편견과 오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은 채 존속한다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그리고, 남북의 상이한 이념 체계와 이질적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재통합 과정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어쩌면 이 숙제는 지루한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우발적으로 일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의 여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통일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상호성의 원리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 지원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극심한 경제 격차를 고려해 볼 때, 초기 단계에서의 상호주의는 엄격한 상호주의(기계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주의)를 의미하기 보다는, 유연한 상호주의(비동시적이고 비등가적이며 비대칭적 상호주의)를 의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남북한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신뢰가 조성되고 협력의 기틀이 조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엄격한 상호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다음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교과과정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으로 조화성, 자기주도성, 연계성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화성의 원리이다.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방법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을 분단된 상태에서 각기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민족 이질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정도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질화는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남북한의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한 예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다양성은 우리의 언어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언어는 남한의 언어보다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쓴 부분이 많고, 외래어에 대한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언어는 지나치게 외래어가 많이 쓰이고, 상업적으로 오염된 언어가 많다. 반대로 북한의 언어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오염된 언어가 많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독려하는 언어가 많다. 따라서 남북한이 각자 지니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통합해 나가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론적 접근(和而不同)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차이는 문제라기보다는 발전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자기주도성의 원리이다. 즉, 교육 주체의 자율성 및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 교육 주체가 좀 더 자유스럽게 남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피력해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혀가고 편협된 시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교육을 통해 자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수용하고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수동적인 ‘추종자로서의 통합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하고 복잡한 분단 상황 속에서 어떻게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적극적인 ‘주인(지도자)로서의 통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계성의 원리이다. 교육기관과 가정, 언론,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매체(agents)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대개 TV나 신문매체 등을 통해 얻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학교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과 함께 가정, 언론, 지역사회, 정부 등과의 유기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매체에만 의존하여 교육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교육목표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신문, TV, ICT, 인터넷,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국현(2004).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반편견교육」. 인간사랑.
- 김찬희(2010). "더 나은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소고", 「학교통일교육 발전방안과 사례」. 통일부 통일교육원.
- 박세일, "개혁보수와 수구보수의 갈림길", <http://news.chosun.com>.
- 박정은(1995). "사회의식과 문화발전: 차이의 사회이론과 도덕의식", 「광복 이후 한국의 문화변동과 그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찬석(2009). "남한의 초중등학교 교과목의 통일관련 학습 내용의 실태 분석", 「남북한 통일교육의 과제와 전망」.
- 유영옥(2002). 「남북교육론」. 학문사.
- 임현진(2000). "남북한 통합의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한범(1997). "남북한 이질화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한국정치학회.
- 통일부 통일교육원(2005). 「2005 통일문제 이해」.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2011초등학생용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2011중학생용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2011고등학생용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중학교 도덕2·사회3 2011년 교과서 통일관련 내용」.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고등학교 도덕·정치·사회·문화·한국사 2011년 교과서 통일관련 내용」.
- 차우규 외(2000). 「남북한 초,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연구보고 CRC 2000-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차우규(2005). "도덕·윤리과 통일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 정세구 외, 「도덕·윤리과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교육과학사.
- 차우규(2005). "북한의 교육 개발 방향과 전략", 「평화를 위한 우리의 한반도 정책 대 구상」,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한림과학원 편(1998).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하)」. 소화.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출판사.
-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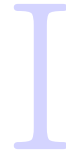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송 두 록
(서울고등학교 교사)





이상적인 학교통일



1.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

궁극적으로 통일은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현실적 목적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한민족은 일천 년 이상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같은 언어, 같은 전통 문화를 지닌 채 동류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온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는 두 개의 국가 체제에서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은 일이다. 하루빨리 휴전선을 철폐하고 영토를 하나로 만들어야 할뿐더러 남한의 민주주의·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를 통합하여 그 역시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영토의 통일 또는 체제의 통일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민족이 통일되었다는 진정한 의미는 남북한 주민들 간에 상호 이질감·경계심·적대감 등이 없어져야 하며, 그 자리를 같은 동족으로서의 의식·가치관·신념 체계가 대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이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강한 운명공동체 의식을 지닐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학교와 통일교육 : ‘제2의 민족 분단’ 우려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관련 설문 조사에 의하면 최근 10 여 년간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더욱 더 유의해야 할 것은, 통일 이후 같이 살아가야 할 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 비호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¹⁾

1) 이미경(2010, pp.18~20)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1997~2020)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997년 71%에서 2010년 57.3%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 1997년 85%에서 2010년 6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서, “2010년 통

이러한 비호감 추세가 그 대상을 정반대로 하여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남한으로 입국한 2만 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이 약 3천 여 명 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남한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실패하고 있다. 1995년 무렵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전후 시기에 출생한 그들은 신체적 왜소함과, 북한 교육의 붕괴에 따른 학업 능력 부족의 열등감 때문에 남한의 또래 학생들로부터 문화적 괴리감과 심리적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남한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남한 사회로 온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남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²⁾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미래의 한민족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남북한 청소년들 간에 이처럼 비호감과 원망이 상호 교차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이 통일 이후의 남북한 교실에서도 재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제2의 분단’ 이 초래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민족 분단’ 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³⁾

3.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남북한관·안보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청소년들의 수준과 관심에 부합되게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 면에서 추후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상적인 통일교육의 목표 면에서, 현행 학교통일교육을 다음 <표 1>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교육협의회의 조사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 호감이 45.8%, 비호감이 54.1%였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그냥 그렇지, 부동켜안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친구의 의견에 손을 든 학생들이 다수였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2011, pp. 91~103)의 「탈북학생지도 전문교원 기본연수 교재」에 따르면, 북한이탈학생들이 남한 학교교육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갖는 어려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자원해서 그들의 적응 지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다.

3) 이하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지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논의 맥락상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표 1〉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

구분 \ 체제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목표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통일한국인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가치관·태도 함양
교육대상	남한 초중고등학생	남한 유초중고대학생 및 북한(이탈) 유초중고대학생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민주주의 · 민족 공동체 의식 · 건전한 안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 보편적 가치 · 민족 공동체 의식 · 남북한 교과내용 · 남북한 학교생활
교육기관	제도적 공교육기관	제도적 공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보조)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는, 앞으로의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화해·교류 협력 단계를 넘어설 것을 예측하고 통일 무렵 및 통일 한국 이후를 상정해서 통일교육을 했으면 하는 것이다⁴⁾.

예컨대, 이 무렵이면 남북 통합 과정 또는 이후에 대두될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북한 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배타적인 이질감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의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남북한 이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의무·역할 분담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민족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하는 교사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통일교육 실상을 생각해보면 무안하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비록 교과과정 상 통일교육 시간 수가 줄어들고 내용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단일한 법적 체계 아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의 노력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매년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통일교육이 갖는 시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 환경 역시 정부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4) 이때껏 통일교육지원법 2조의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의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만 생각해 오지 않았나 여겨진다.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이 시간적으로는 ‘통일 이전의~’에만 국한되었고 공간적으로는 ‘남한 내에서~’가 주된 영역이었다. 이제는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준의 통일교육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게다가 비록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한민족은 당당하게 우리의 ‘민족 통일’ 을 대내외적으로 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제 사회에 지은 전죄(前罪) 때문에 ‘통일’ 을 공식적으로 내세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독일과 통일 환경이 다른 것이다.

한편,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활성화된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학생이 서로 남북한을 오가면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영역이다.

필자가 학교 교실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통일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학생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도해 보기도 하고, 통일교육 시범학교 보고 발표회를 통해 이런 저런 사례들을 접해 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 있는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체험을 해 본 것이 학생들을 데리고 금강산을 가서 북한 풍물과 주민들을 접하고 나서 쓴 학생들의 소감문들을 심사할 때였다.

학생들이 쓴 글을 보면 북한에 대한 사실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족애가 주된 스토리가 되어 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심정이 구구절절이 배어나 있어서 정말 글들이 살아 있었다. 어느 작품을 우수작으로 뽑아야 할지 심사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는 교원들에게도 좋은 연수가 된다. 공무상 아니면 관광을 목적으로 평양을 다녀온 교원들이 북한의 실상을 접하게 되면서 일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나 여겨지던 분들도 균형 잡힌 북한관을 갖고 통일교육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이다.



교과과정 이외의 학교통일교육 현황 II

1. 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통일교육을 여러 교과에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실천에 있어서 해당 교사들이 교과 성격과 학습 주제에 맞추어서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 수업은 그 진도가 정해져 있고 평가와도 무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과 수업만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교사와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평가와 무관하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특별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등의 경우에 통일교육 주제와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해서 훨씬 용이하게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일교육이 가능한 교과활동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인 특별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표 2>와 같이 자치활동, 적응 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하위 영역을 설정해 두고 있다.

<표 2> 제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의 하위 영역

영역	세부 활동 내용
자치활동	협의활동, 역할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
적응활동	기본생활습관 형성활동, 친교활동, 진호활동, 상담활동, 정체성확립활동
계발활동	보건체육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술문예활동
봉사활동	일손돕기,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행사활동	의식행사활동, 학예행사활동, 보건체육행사활동, 교류활동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그리고, 재량활동은 학교 교육이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교과의 학습을 위한 교과 재량활동,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및 범교과 학습을 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운영된다.

이 중 교과활동 이외의 통일교육이 가능한 활동인 창의적 재량활동 가운데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교와 교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연 혹은 현장체험학습 등을 말하며, 범교과학습이 가능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 범교과학습 주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16개, 이상 7차교육과정)
청렴·반부패교육, 물보호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이해교육, 인권교육, 안전·재해대비교육,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교육, 호국·보훈교육, 아동·청소년보호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여가활용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지적재산권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19개, 2007 개정 교육과정 추가)
한국문화사교육, 한자교육, 녹색교육(3개, 2009 개정교육과정 추가, 총 38개)

이러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묶어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 - 41호, 이하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라고 함)에서는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금년 즉,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활동’ 이라고 함)을 하게 되어 있다.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을 하는 창체활동의 시간 편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총 1,682시간 중 272시간, 중학교 1학년은 1,122시간 중 102시간, 고등학교 1학년은 3개 년간 이수해야 할 총 204단위⁵⁾ 중에 24단위를 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창체활동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고등학교의 경우 1단위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표 4〉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

영역	성격	활동
자율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활동 · 자치활동 · 행사활동 · 창의적 특색활동
동아리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활동 · 문화예술활동 · 스포츠활동 · 실습노작활동 · 청소년 단체활동 등
봉사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봉사활동 · 지역사회봉사활동 · 자연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등
진로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활동 · 진로정보탐색활동 · 진로계획활동 · 진로체험활동 등

2011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과 같은 특별활동을 주당 2시간씩 1년에 68시간 하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창의적 재량활동을 주당 2시간씩 68시간을 하게 되어 있다.

1997년에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3학년은 재량활동 68시간과 특별활동 34시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총 1,156시간 중 특별활동 68시간과 창의적 재량활동 34시간을,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은 2개 년간 총 이수단위 140단위 중 8단위의 특별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표 5〉와 같다.

〈표 5〉 2011학년도 학교급별·학년별 교과 이외 교육활동 시간

학교급	학년	가능한 시간	근거
초등학교	1~2학년	· 창체활동 272시간 (주당 4시간, 1~2학년 전체 교육과정 시간수의 16%)	2009개정 교육과정
	3학년	· 특별활동 34시간, 재량활동 68시간 (주당 3시간, 전체 교육과정 시간수의 10%)	7차 교육과정
	4~6학년	· 특별활동 68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68시간 (주당 4시간, 4~6학년 전체 교육과정 시간수의 13%)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 창체활동 102시간 (주당 3시간, 1학년 전체 교육과정 시간수의 9%)	2009개정 교육과정
	2학년	· 특별활동 68시간 (주당 2시간, 2학년 전체 교육과정 시간수의 6%)	2007개정 교육과정
	3학년	· 특별활동 68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34시간 (주당 3시간, 3학년 전체 교육과정 시간수의 9%)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 창체활동 24단위 (주당 0~24시간, 1~3학년 전체 이수단위 수의 12%)	2009개정 교육과정
	2~3학년	· 특별활동 8단위 (주당 0~8시간, 2~3학년 전체 이수단위 수의 6%)	7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1시간 : 40분 수업, 중학교 1시간 : 45분 수업, 고등학교 1시간 : 50분 수업

2. 교과과정 이외의 학교통일교육

이러한 특별활동 및 창의적 재량활동 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체활동 시간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실태는 어떠할까.

일반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이러한 시간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교육의 정도는 거의 미흡한 편이다. 이 시간들이 주로 학교의 다른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해서 활용되기 때문이며, 특히 교과 시간에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통일부 등으로부터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표 6〉과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학교가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과 이외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6> 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예시(2006년~2010년)⁶⁾

년도	학교명	주제명
2007	마포초	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 꿈 키우기
2008	오금초	체험학습 중심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기르기
2008	서서울생활과학고	통일시대 대비 학생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 방안 모색
2009	공연초	학생참여활동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 능력 함양
2009	신목중	학생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2009	서초고	토론 및 나의 주장 발표를 통한 통일의 필요성 교육
2010	전동중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의 꿈을 키우는 실천 체험 중심 통일교육 운영
2010	서서울생활과학고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방안 모색

<표 7> 2011학년도 통일부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48개교)⁷⁾

지역	학교명	주제명	비고
서울	상지초	재미있는 통일수업과 체험행사를 통한 통일의식 함양	교+체
서울	전동중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의 꿈을 키우는 실천·체험 중심 통일교육 운영	
서울	서서울생활과학고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방안 모색	
부산	백운초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교+체
부산	학진초	북한이탈학생 이해 교육을 통한 평화통일의식 함양	교+체
부산	명진중	현장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의 꿈 키우기	
부산	감천중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대구	천내초	다양한 눈높이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외지 함양	
대구	대구일중	통일해(海)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통일외지 함양	

6)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주제들을 보면, 2009년도의 신목중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에서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 <표 7>에서 보면, 48개 시범학교 중 오로지 교과 중심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학교는 경남 창원외 용호초등 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지역	학교명	주제명	비고
인천	부광초	학생 참여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하기	
인천	장도초	HA HA HA 프로그램을 통한 탈북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만들기	교+체
인천	연평초중고	연평도 포격 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안보 마인드 형성	
인천	연희중	창의적 체험활동 및 다양한 행사활동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실천 방안 연구	
인천	가정여중	I-STEP 교육을 통한 통일의식 양	교+체
인천	논현고	IPTV를 활용한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 대비 능력 신장	교+체
광주	도산초	눈높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 감수성 함양	
광주	운남중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의식 함양	교+체
광주	침단고	학생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성숙한 통일의식 함양	
대전	삼천중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평화통일 실현의지 제고	
울산	동부초	통일 대비 체험활동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울산	성안중	IPTV 콘텐츠 활용 및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울산	대현고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통일교육 실천 방안 연구	교+체
경기	탄현중	북한 이해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 무관심 세대의 통일실천의식 함양	교+체
경기	문산초	365 통일희망 체험활동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경기	삼죽초	탈북 유초등학생 입국 초기 교육 지원 방안	교+체
경기	풍덕고	토의 토론 교육과 연계한 통일교육 실천 방안	교+체
강원	화천 실내초	눈높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맞춤형 통일교육	
강원	철원 장흥초	IPTV 콘텐츠 활용과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의식 제고	
강원	대진중	참여 중심 통일교육과정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내면화 방안	
강원	임계중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한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충북	청주 서촌초	체험중심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충북	이월중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교+체
충남	온양초	민족공동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교+체
충남	탕정중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통일의식 제고	교+체
충남	합덕여자고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교+체
전북	군산 흥남초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교+체
전북	7군산 시흥중	민족공동체교육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	교+체

지역	학교명	주제명	비고
전남	용치초	통일교육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남북한 평화통일의지 함양	
전남	영광여중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전남	완도 금일고	청소년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체험형 학교통일교육 실천 방안	
경북	영주 동부초	통일의 길을 따라 [선돌이의 꿈] 지도자료 개발 활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교+체
경북	상주 화령중	실천·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경북	김천 상업고	체험 중심 통일교육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경남	창원 용호초	통일교육 학습 모듈 개발 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교과
경남	위천중	테마별 체험중심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경남	김해고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의지 함양	교+체
제주	우도초	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의식 함양	교+체
제주	서귀 중앙초	북한사회 바로알기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	교+체
제주	추자중	클립 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의지 함양	

※ 비고란의 ‘교+체’ 는, 운영 주제로 판단하건대 ‘교과학습과 체험활동’ 으로 운영 될 수 있겠다고 필자가 추론한 것임

이러한 교과 외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통일 관련 시설 방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북한영화 상영, 통일교육원, 전쟁기념관, 제3땅굴, 임진각, 통일전망대, 철책선, 평화의 댐, 거제 포로수용소, 도라산역, 서서울생활과학고 등)
- 통일의식 제고 체험활동
(통일 퀴즈 풀기, 통일신문 만들기, 북한 영화 보기, 통일 글짓기, 3행~5행시 짓기,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통일 국기 만들기, 통일 교육 실태 조사하기, 통일 기원 자전거 하이킹, 통일 연 만들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포스터그리기, 통일 코너 만들기, 북한 음식 만들기, 통일 비빔밥 만들기 등)
- 강연회
(탈북인사, 북한 전문 강사 등)

2. 교과과정 이외의 학교통일교육 문제

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통일부나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매우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그 결과, 시범교육 기간 내내 통일 관련 각종 자료 탐구 조사를 통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구안·적용하거나 교원과 학부모의 통일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활성화되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그 극복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통일교육의 편성면 : 그냥 시범학교이니까~ ‘지나가는 학교통일교육’

학생들이 통일교육 현장 체험을 통해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정규 교육과정 시간 중에 지속적으로 리마인드되지 않으면 그 학습 효과가 반감되게 된다.

즉, 학생들의 파지와 전이가 촉진되어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몇 시간씩의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다 보니 현장 체험 등의 결과가 이후에 지속되지 않는, 일회성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통일교육 체험 내용을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심화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감문 쓰기와 토의 시간을 갖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시범교육 기간을 장기화할 필요도 있다.

- 통일교육의 운영면 :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갈팡질팡 학교통일교육’

금강산 기행을 마치고 쓴 글에서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모두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북한이 솔직히 외국이지 우리나라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통일되면 세금만 더 걷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까지 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서인지 통일은 되어도 그

만 안되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수업 시간표에 기재된 통일교육 시간에 교사가 수업만 하면 그게 곧 통일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적·윤리적·철학적 가치들을 심어주는 것이며, 이는 통일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적 이해 차원에서 요구되는 대북정책적 요소들이 통일교육에 반영되면서 보편타당성 있는 통일철학 요소들이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학교통일교육이란 것이 심하게는 정권 안보 차원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져서 교사들의 혼란과 불만, 거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떤 교실에서는 예전에 하던 대로 이분법적 논리의 반공교육이 이루어지고, 다른 어떤 학교에서는 분명히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념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배에서 한 사람은 노를 이렇게 젓고, 다른 사람은 노를 저렇게 젓는 교육이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한반도가 갈 길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 담당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한편, 이는 주변에 넘쳐나는 통일교육 콘텐츠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일교육자료, 통일교육원 자료, 각 시도교육청 통일 관련 계기교육 자료, 각종 민간 단체들의 북한 관련 자료,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 및 탈북자 정보 등 통일교육 콘텐츠들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들의 저술에 의한 잘못된 팩트들, 정파적 이해 관계가 반영된 자료들 때문에 정작 보편타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드문 편이다.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이 지도 주제에 적합한 콘텐츠를 스스로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콘텐츠 재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통일교육의 내용면 : 교육 컨셉이 없는~ ‘오리무중 학교통일교육’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전념이 된다. 학생들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들어가서 주절주절 이런 저런 이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그 교사의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보여 줄 자신만의 수업 전략과 무기가 있어야 한다. 가르쳐야 할 내용들 중에서 자신이 잘 아는 그러면서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특별히 선정해서 그 내용의 최신 자료들까지 수합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교수 방법과 교수 자료로 전문화시켜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원들의 전문성이다.

교사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는 통일교육 내용은 사실 교육 실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사회문화적 접근이라고 해서 북한을 이해하려고 해보지만 생활 격차 때문에 생소한 게 많아서 과연 동족으로 봐야할지 학생들이 의아해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을 교사들이 이리 저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해서 그렇지만 학생들로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듣다보니 판에 박은 듯 그게 그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된 북한 영상 자료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 없이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 북한의 TV나 영화, 만화 영화 등 영상 자료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들의 타당성과 시의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후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면 : 학생 흥미와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강제동원 학교통일교육'

학업 성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 기제가 동기 유발이다. 그런데 기존의 설문 조사 결과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은 단순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생들이 한 학급·학년 또는 전체 학생들이, 그들 표현으로는 말 그대로 '강제 동원' 되어서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다보면 군중심리가 발동되어서 학생들이 떠들게 마련이고, 그 학생들에 대한 질서 지도 차원에서 학년부장교사나 생활지도부장교사가 잔뜩 위압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교육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들은 내용과 유사할 경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집중하지 않게 된다. 아니면, 지난번 강사 이야기와 아예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통일관·대북관이 더욱 더 혼란스럽게 될 따름이다.

학교 담당자는 통일교육 관련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에는 그들에게 사전에 학생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알려줘서 강사들이 강의 내용을 조정해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학교통일교육 담당 교사가 교육해야 한다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교수 내용과 함께 자신의 교수 취향에 적합한 방법 등을 확인해서 어떤 유형의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 자료를 완성시켜야 한다. 이성형 학생들에게는 지적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성형 학생들에게는 감성적 자극이 될 수 있도록 IPTV 자료/영화 포스터/영화 내용/동영상 자료들을 활용하되,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 자료를 만들고 나서는 반드시 저작권보호기구에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통일교육의 기저 : 그렇지만 꾸준히 추진되는 ‘거북이형 학교통일교육’

지난 몇 년간 남북한 교류 실태가 질적·양적으로 심화 확대되었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하여 예전처럼 정치인들이 전담했던 단계는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아마도 그런 뜻에서 통일교육원에서 통일에 관심 있는 젊은 강사들을 키워서 100여 명의 ‘눈높이 통일교육 전문강사 풀’ 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통일교육 시범학교 숫자를 30여 개 학교에서 48 개의 학교로 늘리는 한편, 통일교육 담당 교원이나 장학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교육을 통해 매년 4~5천 명을 연수시키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 ‘일일 통일교사’ 와 같은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60여 개 교 2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해온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기도 하다.

덕분에 교육계의 불모지로서 버려지다시피 한 영역인 학교통일교육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추진력에 힘입어 여러 종교·사회 단체에서 통일교육에 뛰어들 수 있었고, 우리 교사들도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를 위시한 2~3 개 정도의 교원연구회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과과정 이외의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III

우리가 통일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누누이 강조하기 보다는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되, 통일 지상주의 입장이 아닌 민족 공동체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우리가 통일교육 시간에 통일비용 설명과 이해에 몰두해 온 것은 학교통일교육 전략 차원에서 잘못된 듯이 여겨진다. 그렇지 않아도 1~2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기성 세대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자라나는 남한 청소년들인데, 통일교육 시간에 비용 논쟁이 이루어지니까 그 학생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 실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뭘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없고, 북한의 핵폭탄 때문에 세계에서 걱정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도 일으켰다.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큰 소리 한번 듣지 않은 채 평화롭게만 살아온 남한 학생들로부터 비호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남한 학생들이 통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식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금 남한 학생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통일 인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보여 준 우리 남한 청소년들의 열정과 애국심, 민족애를 생각해 볼 때, 남북한 통일 노력의 타당성만 인정되면 바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물론 북한의 동의를 받기 어렵긴 하겠지만 북한과의 교류 항목 가운데 남북한 학생과 교사들 간의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해 나갔어야 한다고 이해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의 타당성과 학생의 수준 및 흥미 반영 여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이외의 학교통일교육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육의 거버넌스 측면(1) : 국가 차원의 학교통일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

통일교육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살펴보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일교육을 마치 통일부에 아웃소싱 하듯이 하면서 ‘관리’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 7천만 명의 생존 및 생활 문제가 결정되고, 장차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된다. 좀 더 세세하게는 만약에 4~5년 후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남북한 간의 교사들 몇 만 명이 재직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남한 또는 북한에 가서 근무해야 할 뿐더러, 남북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보급되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한 두 명의 교육연구사가, 그것도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서 기획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⁸⁾.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차원의 학교통일교육 컨트롤 타워의 상당한 영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학교통일교육 컨트롤 타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노력은, 서독의 통일교육지침⁹⁾마련 및 운영 체계 구축이다. 우리들도 통일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한민족을 새로운 발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 목표와 방향을 타당하게 수립해야 하며,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학교통일교육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가정과 언론 기관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실시된 많은 조사들에 의하면 학생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자료 및 정

8)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남한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총괄하는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해당 과의 29개의 업무 내용들 가운데 하나로서 ‘통일 대비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의 요구 사항 및 경제 소양 등 범교과 학습 주체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이 있다.

9)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독의 주(州) 문교부장관상설회의(Kultisministerkonferenz, KMK)에서 1978년에 발표한 학교에서의 ‘독일 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을 말한다. 서독은 통일교육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적 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대표하는 서독 각 주의 문교부장관들이 공동으로 교육지침을 작성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민적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보를 신문이나 TV 매체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이 그들의 통일 관련 기본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의 거버넌스 측면(II) : 16개 시도교육청별 통일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현재 각 시도별로 통일부 산하 기관인 통일교육센터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들을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활동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우선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현행 통일교육센터에서 학교급별 단위수업 시간에 맞춘 각종 자료와 교육 기법들을 개발하여 지도 주제별로 정리해 줌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학교 현장 교사들이 센터 업무를 일부 맡아서 좀 더 현장감 있게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통일 과정과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간접 경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을 때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성과 다양한 능력들이 발휘되어서 통일 과정에서의 갈등과 통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각 지역의 폐교들을 활용해서 통일체험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들 또는 그러한 역할 실연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시형 또는 농어촌형 북한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가운데, 남한 학생들이 가서 북한의 학교생활과 문화생활을 체험하면서 통일 과정을 겪어보게 하거나 통일 이후를 생각해보게 하는 통일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 있는 학교통일교육이 될 것이다.

3. 교육의 유의미성 제고 측면(Ⅰ) : 유초중고 수준별 눈높이 통일교육지원단 강화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학교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눈높이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이들에게 강의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도록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2 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을 나갈 수 있는 이송 수단도 갖춰 주는 등 눈높이 통일교육지원단 체제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학교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고,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을 갔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미디어 및 일간지들을 전문적·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 내용들을 시의 적절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학습 자료들을 보완·제공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

물론, 유초중고 수준별 눈높이 통일교육지원단에는 현재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이탈교사들과 북한이탈주민 또는 청소년들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적합한 교수기법만 체득하게 되면 자신의 삶과 앎을 토대로 남북한의 통일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우수한 잠재적 전도사들이기 때문이다.

4. 교육의 유의미성 제고 측면(Ⅱ) : 통일을 추구하는 학생 동아리와 교원 연구회 지원

무엇보다도 학교 내에서 자생력 있는 통일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 간에 통일을 추구하는 동아리가 결성되고 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지도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자생적인 통일교육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통일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수업 모형의 선택이 수업의 효과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데, 교원연구회 활동을 하다보면 교사가 주어진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업 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크게 함양될 것이다.

그리고 사소하게는 이러한 학습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수업 시간을 박스화시켜서 두세 시간을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표 편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

5. 교육의 유의미성 제고 측면(Ⅲ) : 중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운영

중고등학생들의 통일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대학생들에 의해 좀 더 인지적·포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대학생들에 의해 좀 더 체계화된 통일교육 동아리활동이 중등학교 현장에 피이드백되어서 그들의 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될뿐더러, 대학생들 자신에게는 스스로의 진로 모색 및 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간의 연합 동아리가 결성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활동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통일 캠프 활동이다.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조국의 산하를 누비거나 아니면 통일된 외국의 통일 현장을 체험하는 청소년들의 캠프 활동은 교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해 온 통일교육을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캠프 활동 때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나아가 북한에서 학생 교류 차원에서 북한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을 보내 준다면 더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제안한 통일교육 컨트롤 타워에서는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육당국 간의 협상을 전략적으로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IV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

통일의 당위성과 그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과 교사들의 무관심, 학교 관리자와 교육정책 결정자들의 관심 소홀,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전문 지식 미흡, 입시 위주 교육 풍토에 따른 통일교육 환경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통일교육은 교과학습을 통한 통일교육과 교과 이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과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은 통일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가치관을 학습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평가 문제가 있고 학습 진도에 따른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과학습을 포함해서 교과 이외의 활동 즉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학교 행사,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통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거시적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할 일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 박영호 외(2003). 「통일예측모형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 추세 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16. 서울: 통일연구원.
- 서울시교육청·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2011). 「탈북학생지도 전문교원 기본연수[전문]」. 서울: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 이미경(2010).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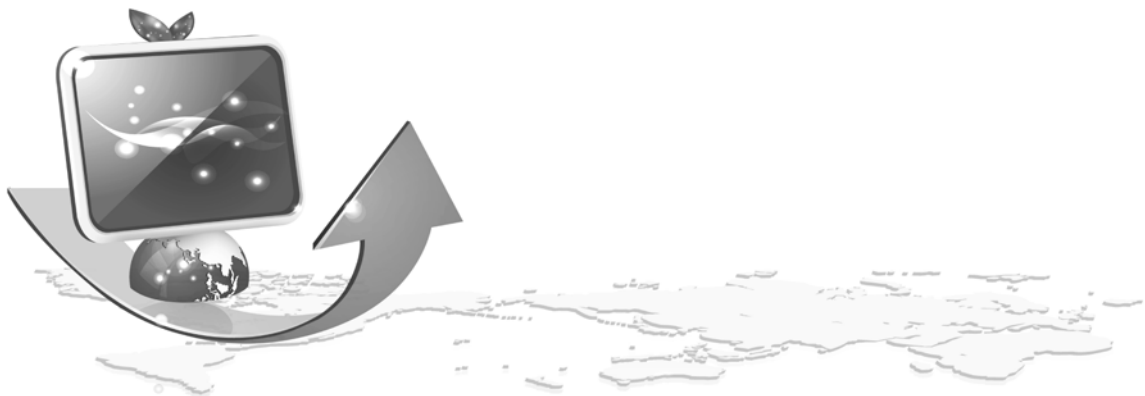


토론내용 요약 자료

이 인 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류 정 섭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이 미 경 (통일교육원 교수)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1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학교 통일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전, 관심과 열정, 그리고 의지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교과교육 활동이나 교과교육 외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학교 통일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의 교육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방금 발표하신 두 분은 각각 학교 통일교육의 2가지 핵심 영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자는 두 분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경우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준비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소견

차우규 교수(이하 발표자로 칭함)는 학교 통일교육 활동 중 학교 교과교육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과교육 운영에서의 통일교육의 실태를 2011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과와 사회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먼저 "미래 선진 한국 창조에 기틀을 마련하고 건전한 안보관과 균형있는 북한관을 확립"을 학교 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상호불신과 편견 극복, 각 교과 특성 반영과 연계 및 단계적 접근, 통일내용의 각종 평가에의 반영, 다양성 혹은 통일성" 등을 통일교육의 지도 전략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논평자는 대체로 발표자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다.

첫째, "통일교육도 통일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단계별 통일교육의 접근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필요성에서 타당하며, 학교 급별로도 이러한 단계 적용이 가능한지 모호하고, 각 단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둘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가 고사 및 평가에의 반영 방안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충분한 지식과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통일문제에 대해 직·간접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통일 문제의 '암기식 반짝 관심'만을 유도하고 이는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형성할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 급별 그리고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별 통일교육의 지도 방향에 대한 분석에서 발표자는 각급 학교 통일교육 지침에는 내용과 방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학교 급별 발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 교과와 교과 간 그리고 학교 급간 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관심과 흥미도의 저하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자의 세밀하고도 명확한 분석에 토론자도 깊이 공감을 표한다. 다만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통일교육 지침서가 교육과정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육 지침서가 각급 학교에서 또는 각 교과별 통일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통일교육 지침서와 각급 학교 및 각 교과별 통일교육에서의 연계 활용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각급 학교 및 각 교과별 통일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통일교육 지침서가 정작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교사들은 여러 이유로 통일교육을 하기에 앞서 통일교육 지침서를 꼼꼼하게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각 교과별 특성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통일교육 교수학습 전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그러다보니 통일교육 지침서와 무관하게 또는 심하게 말하면 자의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통일교육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지침서가 책자로만 있지 않고 통일교육의 가이드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교과과정 통일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자는 다소 원론적이지만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과 방법에서의 지도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론자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화성, 자기 주도성, 연계성을 언급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발달 상의 특성이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효과적인 원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지도 원칙으로 제시한 통합성의 원리가 애매하게 기술되어 발표자가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청하고자 한다.

2.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한 소견

송두록 선생님(이하 발표자로 칭함)은 고등학교에서 직접 통일교육을 담당하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의 실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잘 제시해 주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잘 전달함으로써 현실감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발표자는 이상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남북 통일 과정이나 이후에 대두될 문제를 예측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표를 추구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 남북한을 오가며 하는 '체험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장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발표자는 교과과정 이외의 학교 통일교육이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시범학교 형태로 통일관련 시설 방문, 통일의식 제고 체험활동, 강연회 등이 있음을 분석하고, '지나가는 통일교육', '갈팡질팡 통일교육', '오리무중 통일교육', '강제동원 통일교육'으로 상징화하여 현행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분석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든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이든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편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점들을 설득력 있게 잘 분석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일교육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이 '거북이형 통일교육'으로 상징화한 '눈높이 통일교육 전문강사 풀' 확보와 통일교육시범 학교의 증대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통일교육 담당 교원 및 장학사 대상 통일교육 연수의 지속이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발표자는 교과과정 이외의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차원의 학교 통일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 16개 시도교육청별 통일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유초·중고 수준별 눈높이 통일교육지원단 강화, 통일을 추구하는 학생 동아리와 교원 연구회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정책 담당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발표자의 대안 중의 첫 번째로 제시한 국가 차원의 학교 통일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교과부 내에서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되고 여기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타당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평소 논평자도 자주 강조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통일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 또는 학교 통일교육의 정책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교과부와 통일부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2개 기관이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학교 통일교육은 중심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기

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학교를 통하여 각 기관의 통일문제나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쪽은 학교 통일교육의 위상과 열기를 낮추는 정책을, 다른 한쪽은 통일교육의 강화를 역설한다면 손발이 맞지 않은 형태이니 각급 학교에서는 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교과과정이든 교과외 과정이든 학교의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과부와 통일부는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통해 통일교육에 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서로 협력하면서 각 기관의 책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통일 준비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 학교 통일교육의 성패는 그 기반 마련을 위해 절대 중요하다.

최근 남북한 통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언제 통일이 될 지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통일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절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원하는 가치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부가 금년 2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통일송'의 노랫말을 보면 통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통일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 3대 공동체 형성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차분히 통일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통일 의식 파악과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적극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미래 통일 시대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올바른 인식과 판단력, 열정과 비전 그리고 강한 의지와 실천 능력을 일찍부터 함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을 앞당기거나 통일의 과정에서 덜 허둥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의 과정으로서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발표자 두 분의 좋은 방안들이 꼭 실천되었으면 한다. 이에 덧붙여 다음의 내용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도덕적, 실제적 당위성을 통일 문제에 무관심한 청소년들

에게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해 실질적이고 타당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단히 민감하다. 통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제시한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원인 중의 하나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제까지 다소 통일비용에 간혀 통일편익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먼저 온 통일의 미래라고 일컬어지는 북한 이탈주민 및 탈북 청소년들에 대하여 편견과 무시가 아닌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학생들이 단순히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갖는 장점이 잘 부각된다면 통일의 과정이나 이후에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데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시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거나 행사 위주의 일과성으로 그치고 마는 현행의 통일교육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통일교육이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학교와 가정 및 지역 사회가 함께 통일문제를 고민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 및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협력 체제, 즉 이른바 '통일교육의 3각 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2

류정섭(교육과학기술부 과장)

발표로 대체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3

이미경(통일교육원 교수)

1.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교과과정과 교과외 과정의 통일교육)를 다룬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

■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두 논문 - ‘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과 ‘교과 외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의 현황과 과제는 비록 교과과정과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현행 학교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차우규,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글은 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현황을 2011통일교육기본지침서와 2007 개정교과의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송두록, “교과과정 이외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글은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교과 외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시

- 우선 학교통일교육은 교과과정이든 교과 외 과정이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지적

-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학생수준과 관심에 부합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미흡하다는데서 연유된다는 점을 지적

-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되게 그리고 학생들 수준과 관심을 반영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이 중요하며 나아가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마련- 통일교육 시간 확보,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 제시 (국가차원의 학교통일교육 컨트롤타워구축, 시도교육청 별 통일교육센터운영 내실화, 학교급 별 수분별 눈높이 통일교육 지원단 강화, 학생 통

일동아리와 교원연구회 지원, 동아리 활동의 중등학교와 대학의 연계운영 등)

- 두 발제문의 전체적인 논지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방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아쉬움

- 예컨대 교과과정과 교과 외 과정에서의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분석이라면 우선 분석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상태에서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학교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시돼야 함
- 또한 학교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행가능한 개선안의 구체적인 실례 제시 등이 필요

2.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가. 학교통일교육 실태 및 문제점

1) 통일문제 관심 및 인식 부족

-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경향과 부정적 인식 증가

- 지난 10년('97~' 10)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추이를 볼 때 통일의 관심이 '97년 71%→' 10년 57.3%,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 10년 66.6%로 점차 감소¹⁾

- 북한에 대한 이해·인지도 감소,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 증가

- 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은 감소 추세(북한인지도는 '02년 37%→' 08년 18%로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 08년 27%)²⁾

2) 학교 통일교육 약화

-
- 1) 07~10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 2) 청소년들 상당수는 북한을 불신('07, '08조사, 70%). 한편 청소년들은 북한체제에 비해 북한주민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10.11~12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최초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75.1%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북한주민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는 45.8%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

■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 및 시수의 부족

- 통일교육 관련 교과내용이 도덕·윤리과목에 치중되고 '09.12 학교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추진 일환의 미래형 교과과정 최종 확정에 따른 교과 내 통일교육이 더욱 축소 우려³⁾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공동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의 재설정, 집중 이수제를 통한 교과목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학생의 진로희망을 감안한 맞춤형의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여건에서 기본교과 즉 영어, 수학, 국어와 같은 입시에 직접 연관된 과목에 비중이 증가될 우려가 많으며 이 같은 우려는 실제 드러나고 있는 현실

* 특히 통일교육과 관련 2009 개정교과의 특징은 집중 이수제를 통한 범교과적 학습으로 전 교과에서 통일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가르쳐야 하며⁴⁾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에서 다루어져야 하나 범교과 학습의 영역은 기본 35개(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통일교육 등)에 녹색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 추가 총 38개로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우려가 농후

- 통일관련 내용이 대부분 마지막 단원에 편성, 생략되거나 소홀히 취급
- 수능시험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가 낮아 학습동기 저하

■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저하

-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에서 영재·수학·과학 등 특정 과목 중시 풍토
- 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편향적인 이념교육으로 오해

■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 3)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학년 군 도입, 이에 따라 고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덕 등 기존 고교 1학년 공통필수과목들이 선택과정으로 전환, 향후 각급 학교에서 국·영·수 몰입교육위해 도덕·사회를 중 1·고1에 집중 이수 및 20% 감축 운영할 경우 동 교과 내 통일교육이 더욱 축소 우려, 특히 기존 고교 1학년 필수과목이던 도덕이 사회교과군 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배제 가능
- 4) 예컨대 국어과에서는 북한의 언어와 문학특성, 국사과에서는 남북한의 역사관, 남북한의 역사서술, 일반사회과에서는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비교, 지리과에서는 북한지역의 위치적 특징, 북한의 자연, 기후, 생활방식, 풍습; 미술과에서는 북한미술의 형태와 특성 및 창작기법; 음악과에서는 북한음악의 이념적 기초와 창작기법, 남북한 음악의 장단점 등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 추상적, 거대담론위주의 통일단원 교과내용 중심의 일방적 강의위주 교육
- 판문점, 전적지 등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학습 기회 부족

3) 청소년 통일교육 시스템 미비

- 학교·사회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 장려, 담당교사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 미흡

나. 학교 통일교육 기본방향

-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함양과 객관적 판단능력 신장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함.
 -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작성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분단극복을 넘어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과 화해협력과 안보태세 강화를 병행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인 존재로서의 북한을 균형있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균형있는 북한관’ 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함
- 청소년 통일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실시
 - 통일관련 교과목·시간 편성 확대 및 다양한 학습활동 실시
 -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 활용
-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자 대상 교육 강화
 - 통일교육 담당교사, 장학사,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교육 기회 증대 필요성 환기
-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
 -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법·제도·예산의 확충

* 2009.10.19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이 중 학

교 통일교육 진흥 조항(법 8조)을 보다 구체화하여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

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

■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통일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올바른 통일의식의 함양

-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극복하고 통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통일미래 비전의 논리를 개발하여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과 방식 마련이 요구됨.

1)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한 통일담론 정립

-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부정적인 통일담론에 기초
-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통일담론을 대체할 긍정적인 통일담론, 즉 통일의 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은 과도기적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이 발생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통일담론이 정립되어야 함

2) 공감대 형성의 통일교육 방안

■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위주의 사고를 하는 청소년들의 공감대 형성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식 개발

- 청소년들은 개인적 흥미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이 강하나 그들이 흥미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일정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이 요청됨.
-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교육방식의 채택 필요
- 예컨대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싶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북한

제2주제 : 학교통일교육현황과 활성화 과제

실상, 통일 필요성, 통일 미래상)을 중심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교육방식 (DVD·VOD 등 시청각 교육, 현장체험 학습)을 활용하는 것임

** 교과시간 통일교육시 통일 미래를 청소년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과 방식 모색

- 우선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기대효과- 국가, 사회, 개인적 차원 모두- 를 이해시킨 후 청소년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그들이 희망하는 통일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의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구상하게 하며 이를 UCC나 혹은 가상체험 역할극의 시나리오로 제작하게 하는 등의 방식 채택 가능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구상해 보자” , “통일 10년 후의 나의 모습 스케치” 등의 과제 제시 등)

** 교과 외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창의적 체험활동 통한 통일교육

- 현행 입시과정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대학입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의 비중 확대 가능성. 여기에 통일문제 관련 주제의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들을 창안하여 청소년들의 의식수준과 관심에 부합되는 내용과 방식의 활동을 통해 이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 (“북한이탈청소년과 일촌 맺기” “북한이탈청소년과 일대 일 멘토링 체제 도입” “무의탁 노인·청소년과 가족 되기” “북한인권 실태파악” 등의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방안 마련 가능

라.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과제

1) 학교통일교육 시간의 실질적 확충

- 교과이외 재량·특별활동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 주며, 참여형·체험형 통일교육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함.

2)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부합하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 초·중·고 수준별로 수요자 특성을 고려, 교육 기본자료를 다양하게 개발

- * 「학교 IPTV활용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통일교육원).
- △교과보조용 HD급 동영상/플래시/애니메이션 등 △재량학습용 worksheet △그외 기획프로그램 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소재와 방식을 선택하여 개발

■ 체험 및 참여형 교육방법을 발굴,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

- 「평화통일대행진」, 「청소년글로벌 리더쉽캠프」, 「청소년 통일광고제」 등 운영

3)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 확대

■ 초청 교육과 함께 여러 형태의 교원대상 연찬 지원 강화

- 담당교사, 학교운영 책임자, 교육행정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설명
- 시·도 교육청별 관련 담당교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일선 교육관계자의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강구
- 시·도 단위에서도 통일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교원연수과정에 포함

4) 통일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중앙-지방-일선 학교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시

- 통일부-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간 협력체계와 지역 통일교육 관련기관·단체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통일관, 각급 학교)간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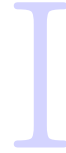
교육대상별 적합한 콘텐츠 개발 방향

박 현 선
(고려대학교 교수)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본방향



1.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본방향

1. 콘텐츠 개발의 목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법적 당위성

- 콘텐츠 개발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해야하는 법적 당위성은 우리나라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 제4조(평화통일정책):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함.
- 결국,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정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엄숙한 이념이며 의무임.

■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반교육을 통칭함.

■ 통일교육 콘텐츠의 주제

통일교육 콘텐츠는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 5주제인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 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에 입각하여 주제 방향을 선정하고, 각 주제 영역이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기획함. 이러한 5주제를 본 논의에서는 통일문제, 북한인식, 통일환경인 주변정세로 분류하여 연구함.

■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목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둘째,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며, 셋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의 함양으로 요약됨.

■ 통일교육의 과제

① 통일문제

- 통일이지의 고취: 분단의 원인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함.
-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남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과정을 실천하는 자세 함양.
- 민족공동체 의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자세를 배양하고 오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자세를 배양함. 다원주의사회에서 통일논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함.

② 북한

-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생활을 사실에 기초하여 다면적으로 인식시킴.

③ 통일환경

- 세계정세의 변화와 동북아질서의 재편: G2 시대의 대두와 동북아질서의 재편에 맞는 한반도 통일 전략 구상함
- 국가안보 인식: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전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 통일교육의 환경

최근 우리사회에서 부정적 통일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례로 통일교육원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997년 85.0%에서 2010년 66.6%로 18%나 감소하였음.

현재 북한은 김정일이 고령이라는 점과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점,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 등으로 불안요인이 강화되고 있음.

결국, 우리사회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증대와 북한의 체제불안정성 강화라는 통일환경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통일준비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시의성 있는 콘텐츠의 통일교육에서 시작됨.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목표

콘텐츠 개발의 목표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의 전후를 대비함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는데 있음.

남북한의 통일은 제도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나눌 수 있음. 제도적 통일이란, 정치·외교적 통합으로 그 실현은 사회적 통합에 비해 단기간에 정부 간 역할에 의해 이뤄지게 될 것임. 반면 사회적 통합은 사회·문화적 통일로 제도적 통합 실현 이전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는 제도적 통합 이후에 진행되게 될 것임. 이는 사회적 통합이 오랜 실현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남북한 사회의 통합이란 남북한 사람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였을 때 가능한 것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력의 배양은 남북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남북한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곧 통일 후의 사회적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 전후의 사회 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결국 통일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첫 걸음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2. 콘텐츠 개발의 원칙

■ 미래지향적 통일을 지향하는 콘텐츠 개발의 원칙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갈라진 두 체제를 다시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함.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남과 북의 정체성 간의 차이를 뛰어 넘어서 새로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행과정임. 이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단편적인 지리적 통합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심리적 측면에서 새로운 동질적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를 지향함.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 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내면화 강조,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미래 세대의 주인의식과 태도 배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하지만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가 되어 왔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또한 한국전쟁이 휴전의 상태로 존재하는 한 북한이 민족이면서 적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이처럼 북한·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신념상태는 통일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지금처럼 통일전후의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 그리고 균형 있는 북한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됨.

■ 단계별로 실용적으로 구성된 콘텐츠 개발의 원칙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모듈을 제시할 때 선택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제된 통일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즉 콘

텐츠의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여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효율적이고 교육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에 힘써야 함.

따라서 통일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관심 갖기 초급용, ▶본 공부 중급용, ▶심화 공부 전문가용 등과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한 교육시간도 고려하여 3시간, 5시간, 10시간용 등 교육주체가 상황과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야함.

3. 콘텐츠 개발의 기본방향

■ 콘텐츠 개발기준 및 개발지표

콘텐츠 개발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하나는 콘텐츠 외적인 구성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구성 원칙임. 전자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의 수행 대상, 콘텐츠의 수행방법, 콘텐츠의 내용 등임. 후자는 콘텐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들로 교육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간을 배정하여 통일교육을 작동하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콘텐츠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이러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 및 각각의 개발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이러한 개발기준 및 개발지표는 향후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때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본 논의는 콘텐츠 수행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표 1>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기준 및 개발지표

	개발지표	개발내용
개발기준1: 외적 구성요소	콘텐츠 수행주체	정부 및 민간단체 연계: 정부 / 민간단체 / 연계
	콘텐츠 수행대상	성별, 연령별 등으로 차별화
	콘텐츠 수행시기	대상별로 단계화하여 진행
	콘텐츠 수행방법	다양화: 강의, 토론, 실습, 참여 등의 방법
	콘텐츠 내용	이론 및 실천 결합: 교육콘텐츠, 실천콘텐츠
개발기준2: 내적 구성요소	평이성	교육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적절성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
	민주성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
	효과성	교육대상자의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시간 배정의 적절성	콘텐츠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간 배분
	현실 변화의 대응성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내용을 변화시키는 탄력성

■ 통일교육 콘텐츠 구성

콘텐츠는 대상별, 단계별, 교육주체별로 분류 가능함.

대상별 콘텐츠 구성은 학습자의 연령, 계층별(소외계층, 특수계층, 전문가)로 콘텐츠의 강조점을 달리함. 먼저 연령별 콘텐츠는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포괄함. 다음으로 계층별 콘텐츠는 기존에 통일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인 여성과 노년층에게 핵심 이슈 중심의 집중 콘텐츠를 개발하고,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해외동포들에게는 그들의 특수한 조건을 감안하여 다문화적 접근의 콘텐츠를 개발하며, 통일교육이나 남북교류사업 담당자 등에게는 전문적인 심화 콘텐츠를 개발함.

또한 교육을 단기·중기·장기별로 구분하고 이를 초급·중급·전문가용으로 세분화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함. 이러한 단계별 교육은 각각 1시간에서 10시간까지 시간별로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함. 교육주체별로 학교·사회·기관·대중매체별 통일교육을 구별하여 이를 교육형태별로 교과과정교육·강의식·체험식 교육으로 구분하여 콘텐츠 개발을 세분화 하여야 함. 이를 구별하여 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이러한 콘텐츠 구성 중 대상별 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논의를 진행함.

<표 2> 통일교육 콘텐츠 구성

대상별 교육	연령별 차별화 교육	유아 통일교육
		초·중등학생 통일교육
		고등학생 통일교육
		대학생 통일교육
		성인 통일교육
	통일교육 소외계층 집중교육	여성 통일교육
		노년층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특수계층 다문화적 접근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 통일교육
		해외동포 통일교육
	통일교육전문가 심화교육	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남북교류사업 담당자 과정
단계별 교육	단기 / 중기 / 장기	
	초급용 / 중급용 / 전문가용	
	1~10시간 시간대별 단계교육	
교육	학교	
	사회교육기관(NGO, 종교단체 포함)	

주체별 교육	대중매체	
교육 형태별 교육	학교교육	교과과정 교과과정 이외 (예 : IPTV, 동아리, 봉사활동)
	사회교육	강의 중심의 일반교육 체험형 교육

■ 대상별 차별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통일교육의 콘텐츠를 계층별로 분류하여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사회도 이미 다양화·전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 계층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추구하는 이상과 삶의 방식이 판이하게 달라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특히 교육대상자의 연령과 계층에 따라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연령별·계층별로 차별화된 내용의 전문화·세분화·특성화된 콘텐츠의 개발은 통일교육의 성과를 가름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음.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시행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각 교육대상 및 단계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통일교육 목표에 수렴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 유아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교육별로 그 대상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통일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II

1. 콘텐츠의 내용

가. 통일문제

■ 통일미래 준비

통일교육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분단구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상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통일과 통합에 대한 교육이며 그 교육에는 통일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포함되어야 함.

■ 보편적 가치의 지향

어떠한 고정된 체제나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개방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들 즉, 평화·인권·복지·관용·민주주의·관용주의·다원주의 등이 충분히 발휘되는 모습이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 바람직함.

나. 북한인식

■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북한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의 제시를 통해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 될 수 있음. 다시 말해 북한의 변화와 우리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촉구함으로써 통

합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음.

■ 경계의 대상과 동반자 사이의 북한

북한을 ‘경계의 대상’ 과 ‘통일국가에서 같이 살아야 할 동포’ 라는 이중적 현실인식과 함께 단순히 ‘주적’ 으로만 생각하여 ‘경계해야 할 변하지 않은 대상’ 이라는 시각과 ‘변화하고 있는 동포’ 라는 모순은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구분이 모호하게 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중적인 북한인식이 지속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여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적대감을 줄이고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서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북한을 타자화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 살아야 가야 할 이웃으로의 인식전환을 지향해야 함.

다. 통일환경

■ 다름과 차이 인식

통일교육은 남북한 사이에 ‘다름’ 을 수용해야 하지만 체제와 이념으로 인한 ‘이질성’ 은 극복하는 방향의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통일교육의 콘텐츠는 다원주의를 배울 수 있는 문화연구, 국제사회이해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다름’ 과 ‘차이’ 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공동체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함.

■ 적극적인 안보관 형성

통일교육에서 안보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교육해야 함. 기존의 군사력에 기반을 둔 국가안보 중심의 좁은 안보관에서 현대 사회의 안보관은 경제·환경·복지·인권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게다가 우리의 실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남북의 정세속에서 확실하면서도 광범위한 안보관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확립할 수 있음. 광범위한 안보관은 통일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쟁과 물리적 폭력에서 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안보관을 넘어서 구조적·문화적 폭력에서 지켜낼 수 있는 적극적인 안보관 형성에 기여하게 됨.

■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통일환경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의 와해와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재편되었다가 이제는 미중 중심의 G2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듯이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함. 특히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체제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국가들의 역학관계의 변화가 통일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콘텐츠에 포함되어야 함.

2. 콘텐츠의 형식

■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위상

통일교육원은 정부와 민간의 통일교육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학계 및 민간의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함.

■ 통일교육의 매체

통일교육을 위한 별도의 형식을 갖추어서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시행하는 형태와 기존의 학교 및 국가, 혹은 사회단체 속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특히 학교교육의 형식에서는 그 통일성과 다양성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통일교육을 기존의 사회과나 도덕과의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일교육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함.

■ 지식전달 교육에서 참여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지식전달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함. 객관적인 사실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라든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해야함. 따라서 교육자가 지식전달자로서 정해진 대답을 주기 보다는 교육대상자의 창조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 사고의 다양화, 문제의 해결능력, 의사소통의 방법 배양 등 다양한 능력의 개발에 힘쓸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함.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기존의 지식전달 위주의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거부감 없이 통일·북한 문제를 접하게 하는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함.

예를 들어 서울 아이의 평양 나들이라는 주제의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음.

-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편견 고백하며 마음 열기
- 대동강에서 사진 찍기
 - 서울에서 한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평양에서 대동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평양과 서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평양냉면으로 점심 식사하기
 - 평양냉면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 남한과 북한 음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음식의 차이는 기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유적지 돌아보기
 - 평양의 동명왕릉, 단군릉, 평양성, 상원검은모루동굴 등
 - 서울의 종묘, 경복궁, 암사동 선사주거지 등
- 평양생활과 서울생활
 - 평양에서의 생활 중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서울에서의 생활 중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활동 후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기

■ 기존 교과과정에 통일교육의 내용을 담는 형식

별도의 통일교육이 아닌 기존의 일반적인 교과에서도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학 교과서에 북한의 ‘개성에서 평양까지 거리(180Km)를 제시하고 자동차로 시속 80km로 달리면 몇 분 만에 도착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접근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

기존의 방송매체와 국가기록원은 분단과 관련된 방대한 영상을 확보하고 있음. 한국전쟁, 분단의 희생자들, 남북관계사의 주인공이었던 역사의 중심인물들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영상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

그 프로그램들을 재활용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서 통일교육의 콘텐츠로 적극 활용함.

이러한 내용은 보다 쉽고 부담없이 분단의 상처 와 피해를 공유해 통일의 당위성 강조 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함.

예를 들어 한강하구의 생태, DMZ 사계, DMZ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수도 있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 길을 간 사람들, 통일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포들을 대상이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작 가능함.

방송매체를 활용한 콘텐츠의 기획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남북 공동 방송 제작 콘텐츠 기획
 - 남북관계가 진전되었을 때 공동제작 형태로 북한의 자연, 역사유적, 음식, 문화재 등도 다룰 수 있음.
 - 한국의 강시리즈로 ‘한강’ ‘대동강’ ‘압록강’ ‘낙동강’ ‘두만강’ ‘금강’ 등도 가능하고 산 시리즈로 ‘백두산’ ‘칠보산’ ‘금강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등도 제작 가능함.
- 남북 경험 및 교류 현장 콘텐츠 기획
 - 남북경협 기업이나 개성공단 기업 탐방 콘텐츠
 - 국내외의 대북 지원 NGO 소개하는 콘텐츠
 -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노래자랑 등 각종 위문 공연(쇼)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중심의 사회문화적 접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기 때문에 최근 통일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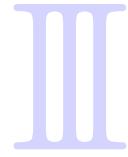
에서 강조되고 있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북한사회의 실상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활용은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이들은 우리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달리 북한사회에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한국 통일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울 소중한 재료로 활용 가능함.

이는 현장에서 교과운영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또 다른 통일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교육대상별 통일교육 콘텐츠1: 연령별 차별화교육



1. 유아 통일교육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통일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아기 때부터 통일에 대한 가치관 형성과 북한인식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유아기 교육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유아기는 심리 사회적 발달의 토대로 지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임.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 참여하면서 삶의 태도, 가치, 기술 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유아기 때 그 기초가 거의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기의 사회화는 아주 중요함.

유치원 통일교육은 정치사회화의 한 영역으로 이러한 영역을 유아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남과 북이 갈라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유아기는 사람들 사이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다른 집단에 대한 획일화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에게 통일과 관련된 가치판단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제시해 주어야 함.

유치원에서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속에서의 놀이 등을 통하여 남북한이 동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함. 이러한 민족동질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북한사회 이해교육, 전통문화교육, 자연환경 친화교육 등을 ‘놀이’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 있음.

2. 초·중등학생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도덕 교과와 내용과 지도방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른 교과와 달리 북한통일 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다루는 도덕 교과는 과거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교수요목’에 따라 사회생활과의 공민분과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되어 7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 현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학습되는 과목임.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

현행 도덕교과에 편성된 교육내용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통일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교육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음. 즉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과 관련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자유, 평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와 정착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음.

이러한 점은 남북관계에서 상기 주체들이 차지하는 민감성의 반영이라고 사료됨. 하지만 우리가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고를 극복하고 재사고, 재구성의 과정을 반복하여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수행해야 함.

둘째,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도덕과는 6차 교육과정 보다 내용이 30%정도 축소되어 운영됨. 이로 인해 도덕과는 계열성 중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이 축소되어 이러한 양적 부족 부분을 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

때문에 과목의 중복을 피하고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목을 도입해야 함. 즉 도덕 교과에서 꼭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루어야 하겠지만, 가치를 다루는 교과와 특성을 살려 타 교과와의 차별성을 고려함은 물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하여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과목 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과목이 도입되어야 함.

셋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체계성과 계열성의 문제가 있음. 7차 교육과정의 ‘나선형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심화연계되는 특성을 지님. 심화연계의 방법은 학습자의 지적발달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교육내용을 선별하고 서술할 때 이를 잘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은 각 과정에서 통일교육을 무리하게 매듭지으려는 분절성을 보여 나선형 교육과정의 장점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의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초·중등교육과정의 통일교육을 각 학교급별로 나열시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별적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특히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경우, 내용구성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시키기에는 생활문화 중심의 내용이 빈약함. 이는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범위를 무리하게 전체적으로 다루려 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시작하는 첫 시점에서 초·중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모색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콘텐츠의 방향은 ‘생활문화’ 중심, 정서적 접근이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남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깨닫고,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반을 모두 다루기보다 부분지어 다루게 된다면 내용에서의 심화성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중복된 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연구자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고등학생 통일교육

고등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은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을 비롯한 통일을 위해 반드시 선결할

내적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다뤄졌음. 이 시기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학습자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북한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통일교육의 목표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함.

즉, 고등교육에서는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와 사고과정을 통해 통일·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확립함은 물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통일교육이 이뤄져야 함.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내용 역시 통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미흡함. 오히려 지금의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공동체의 변영 및 통일 한국의 보습’은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주제의 통일교육 보다는 통일접근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이 보완되어야 함. 이를테면, 통일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능주의에 대한 단순한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이론의 정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의 통일접근 방법에서 기능주의접근의 의미와 한계점, 극복방안 등이 제시된다면 통일에 대한 보다 깊은 사고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임.

더불어 기능주의 접근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소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시켜 소통의 부재로 인한 통일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외국의 통일사례 중 독일의 통일사례와 유럽연합(EU)의 통합 과정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기에 베트남, 예멘의 경우처럼 동등한 비율로 다루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특히 통독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통일 이후의 문제점과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넓은 사고를 유도하게 하는 통일교육 과정으로서 이를 좀 더 깊이 있게 통일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함.

고등학교의 경우 통일교육의 내용은 생활중심, 정서적 접근과 동시에 개념, 기능중심의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분단의 과정과 폐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외국의 통일사례, 주변국가와의 관계, 우리의 통일정책 등에 주안을 두어 통일에 대한 실천적 자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대학생 통일교육

현 국가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광범위 함. 즉 그 사회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연구 성과나 교육내용은 그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이 배운 교육을 실천할 때,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사회에서 실제로 활용될 때, 나아가 사회의 각종 문제나 정책에 대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때 그 영향력은 막대하기에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이 주로 비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했다면 대학 통일교육은 이와는 다르게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뿐만 아니라 자율성에 기초한 대학교육의 특성상 사회 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 통일교육은 우리사회에 통일교육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시켜 사회 전반에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첫째, 대학 통일교육에서 북한·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학과의 경우를 제외하곤 주로 정치학을 위주로 한 북한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주로 북한 정치나 체제문제에 치중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통일교육과는 괴리감이 있으며 통일관련 교과목은 대부분 교양과목으로 운영되어 전반적으로 대학 통일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실정임.

둘째, 대학에서의 북한·통일 논의가 활발하지 못함. 학문적인 분야로서의 접근보다는 정책적 슬로건으로 내세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에 관한 자료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적 근거에 입각한 창의적인 사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됨.

즉 해방이후의 반공논리와 공산주의에 대한 경직된 사고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탐구관심과 능력을 대학사회에서 앗아갔으며, 아울러 남북통일과 북한에 관한 대학

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능력을 거의 무력화시킴. 이런 무능력이 통일논쟁과 북한체제에 대한 시각차이의 혼미현상을 유발해 왔고, 대학은 그것에 대해 당연히 학문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평가해야 할 아카데미즘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음¹⁾

셋째, 현재 개설되어 있는 통일관련 교과목의 내용이 통일교육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통일 교과목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 보다는 북한을 이해하는데 그치고 있음. 통일교육을 위해서 내용을 담아야 할 요소나 항목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며 대상에 따라 그들 내용요소를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가 통일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임. 즉 초·중등교육과정의 통일교육내용처럼 목표와의 관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통일관련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는 적지 않은 수강신청 인원에서 말해주듯 교육내용의 적절할 구성이 전제 된다면 통일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임. 대체적으로 한 학교에서 실시한 북한의 이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북한의 실상과 통일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같은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최신 내용을 계속 반영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학생들과의 대화 확대 등을 통해 상이한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좁혀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교육내용을 늘려 나가야 함. 이를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통일실현 의지 및 남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확립하는데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됨.

대학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통일교육 지도방식은 교수중심의 지식전달이 용이한 강의식·주입식 수업이 주를 이룸. 교육활동에서 교과내용에 대한 구체적 수업방법은 교육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므로 지금과 같은 수업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전달 및 해설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기 보다는 방대한 지식을 전해진 시간에 전달하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 그치고 있음.

초·중등교육과정과는 달리 입시에서 자유로운 대학 통일교육과정에서는 강의식·주입식 교육을 지양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통일에 적용되는 실천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통일교육 목표의 구체적 과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교수자가 효율적으로 사용

1) 이경태, 「바람직한 대학통일교육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3호 (대한정치학회, 2004), p.243

할 수 있는 ICT²⁾ 활용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임.

또한 탐구식 수업, 이를테면 토의학습의 찬반토론(debate), 의사결정하기(decision-making), 최적정방안찾기(PMR) 등을 활용하여 북한-통일문제에서의 중요 현안에 대해 제3자의 방관적 입장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교육의 지루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실천적 과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후의 성인 통일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임.

대학 통일교육 내용에 최신 영상자료를 소개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과거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북한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일선 대학현장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켜 교육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및 토론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생동감 있는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들을 가까이 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므로 대학 통일교육에 이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하여 대학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를 통해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틀림’ 이 아닌 ‘다름’ 을 인지하도록 유도함.

5. 성인 통일교육

사회교육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제도적인 교육으로 학교의 통일교육과는 차이점을 가짐. 사회교육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연수, 기업연수, 직업훈련, 노인교육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육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을 잘 활용할 경우 광범위한 대상에 대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2)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통일교육은 웹자료·VOD·CD 등을 이용한 통일관련 정보 안내하기, 웹서핑·웹도우미를 활용한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정보검색·분석하기, 웹토론을 통한 통일문제관련 국민적 합의 능력 증대하기, 웹게시판을 활용한 통일관련 경험 공유하기, 웹출판을 활용한 통일신문 만들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문화 체험하기, 플래쉬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등이 포함됨.

성인의 경우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 급변하는 통일정세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회통일교육은 성인들로 하여금 복잡한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임.

사회통일교육 기관을 보면 대체로 정부기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는데 요즘은 회사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점차 안보 통일교육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임.

사회통일교육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통일교육은 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우선 사회통일교육은 국민들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시각 차이로 인하여 교육의 방향과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즉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식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의 체계적 연계 하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성이 미흡하여 별개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음. 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게다가 사회통일교육은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그 방향과 목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사회통일교육 기관은 대상자가 다양하고 교육방법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개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대상에 맞는 다양하고 적합한 교육내용을 개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아울러 사회통일교육 기관은 교육을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속성의 결여가 우려됨.

사회통일교육은 대상자로 하여금 전반적인 남북한문제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자들은 전문적인 연구를 축적하면서 북한과 통일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사회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이 주로 성인이라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실 속에서의 통일교육이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이루어져야함. 따라서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사실성과 시사성, 현장성 등을 중시하는 내용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또한 사회통일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특정한 논리에 치중하지 말고 균형감을 가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사회통일교육은 단기교육이 대부분이고 분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내용 구성 시 완결성을 가지게 하는 교육내용을 설정하거나 전후 강좌가 연속성이 있게 편성하도록 해야 함.

한편 사회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강의방식 보다는 실습 또는 토론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는 강의식 방법 후에 적절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대상별 통일교육 콘텐츠2: 계층별 차별화 교육 IV

1. 통일교육 소외계층 집중교육

가. 여성

여성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통일교육은 여성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여성단체들 간의 통일교육을 위한 통합 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아니면 독일과 같이 통일대비 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함³⁾.

여성들을 위한 통일교육에는 다른 교육대상자들의 교육내용을 물론이고 북한 각 분야의 실상 속에서 여성들의 위상과 실태를 설명함으로써 북한사회와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함.

나아가 남북한 여성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상대방의 사회화과정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이해한다면 상대방을 선불리 변화시키려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상호 접근의 길을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성만의 특별한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여성의 통일교육은 교육대상별로 교육 콘텐츠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차별화되어야 함. 교육대상자의 지적 능력,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의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자체 통일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간행물, 학술회의, 연수주선을 통해 여학생, 여교사, 여성기업인, 여성정당

3)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인, 여성언론인, 여성법조인 등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갈등을 극복하게 하며, 이미 한국에 정착해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의 심리적·실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대효과가 있음.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함.

나. 노년층

노년층은 통일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교육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따라서 노년층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임.

노년층은 사고방식과 시대적 경험이 매우 다양하고 일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획일화된 콘텐츠보다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방식이 반드시 마련돼야 함.

노년층 교육대상자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와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구상해야 함.

또한 북한·통일에 관한 젊은 세대와의 인식 차이를 이해시키는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해야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에 중점을 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특수계층 다문화적 접근교육

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유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들에 관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수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배경이 다양화되는 특성을 보임.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간에 문화가 교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혼란에 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여러 문제점을 예견해 보고, 이들을 생계곤란자로 취급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선도자로서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안내자로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형태는 남측의 통일교육대상자들과 함께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정치나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비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문화’ 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하며 대부분 남북한 사회가 막연하게 ‘다르다’ 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통일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남북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동질성을 확대시킴으로써 분단-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적합함.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여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20대와 30대를 축으로 하여 연령대의 분포 및 직업과 경력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남한사회 적응이 비교적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 사회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나는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인맥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아무런 사회적 연결망 없이 혼자서 힘으로 삶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정부와 민간단체가 그들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부적응, 경제적 빈곤, 심리적 소외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다른 하나는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남북한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부장제 문제 즉 성별 위계성에서 비롯된 성에 의한 차별의 문제임.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첫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문제는 소수계층의 권익문제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짐. 한 사회의 소수계층을 성, 연령, 인종, 종교, 지역별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으로 규정할 때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출신 지역 및 성에 의해 소외 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의 발전을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지표에 의해 평가할 때,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

둘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가족의 적응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음.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히 경제적 역할 뿐 아니라 자녀교육, 가족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통일교육을 통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의 성공 여부는 그 가족, 결국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사회적응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가 됨.

요컨대, 통일교육을 통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는 문제는 소수계층의 불평등 해소, 가족문제의 대안, 사회적 통합의 선형적 모델 제시라는 중요성을 지님.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콘텐츠는 그 시행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정부 주도, 민간단체 주도 콘텐츠로 분류됨. 다음으로 정부 또는 민간단체 주도 프로그램은 다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단계인 시설보호단계와 거주지단계로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함. 사회적응단계는 ‘시설보호단계 / 거주지 편입시기 / 거주지 보호 단계 / 사후 시기’ 등으로 구분되나, 콘텐츠 적용에 있어서는 거주지 편입 이후의 시기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두 단계로만 구분하는 것도 가능함.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낮은 취업률, 가족의 신변불안,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집약됨. 따라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콘텐츠 개발도 이러한 적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북한이탈주민 주체별 단계별 통일교육 콘텐츠 방안

주체	단계	콘텐츠명
정 부	시설보호단계: 하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교육 콘텐츠 • 직업교육 • 상담교실 • 특수교실
	거주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관들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민간단체 지원 • 정보의 제공 • 강연회 및 토론회 정례화
민간 단체	시설보호단계	• 하나원 지원 콘텐츠
	거주지단계	• 재사회교육 콘텐츠 • 경제활동 지원 콘텐츠 • 사회활동 지원 콘텐츠

나.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

한국사회는 세계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 이런 사회 변화에 우리 사회와 학교가 다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다수 집단의 개방적·관용적 태도를 양성하는 사회적·교육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 수준은 걸음마 단계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 경제적 상황을 존중해야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그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실정임.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분단과 다문화시대를 토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한국은 ‘국민국가로서 통일을 완성해야 하면서도 다민족국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통일교육을 실현해야 함.

한국의 다문화 통일교육은 분단·다문화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할 것임. 특히 교육대상의 측면에서 외국국적 출신의 이주자의 증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민족이산을 경험한 입국재외동포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나아가 이들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다국적 출신자들의 이주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민족분단, 민족이산, 분단과 통일 등 한국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임. 이렇게 될 때 한국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한국 역사에서 파생된 미해결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현재 한국사회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통일 다문화시대 상황도 준비하여 분단 상황의 극복과 아울러 남북 통합을 대비하는 교육을 동시에 이룩하도록 구상되어야 함. 현재는 다문화교육의 경계를 남한으로만 상정하지만 향후 통일을 고려한다면 그 경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일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한국 다문화교육에서 고려할 점은 이주자들의 출신국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임. 대부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등 한국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들에 온 이주자들임. 이 점은 한국 다문화 통일교육의 콘텐츠 구성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한국이 분단-다문화시대에 놓여 있으며 통일-다문화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특수한 상황과 국내 외국국적출신의 이주자 대부분이 비영어권이며 한국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나라 간 상호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제이해교육보다는 ‘국민국가의 경계 내’의 다양성 존중에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국내 다양성의 특성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콘텐츠에 반영해야 함.

한국 다문화교육은 한국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거주의 경계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분단-다문화시대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다문화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양해 나가는 방향성을 콘텐츠에 제시하여야 함

요컨대 한국적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에는 분단다문화시대에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특정 나라들에서 이주한 사람들과의 공존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이주자들과 남북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때 요구되는 조건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함.

다. 해외동포

현 시점은 해외 동포들이 그들의 축적된 역량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할 때이며 동시에 조국은 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번영되고 희망찬 미래를 후손에게 열어 주어야 할 때임.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정책 동향이나 여론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접하였을 때 이를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해외거주 동포들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 직접방문 등을 통해 북한 권력층이나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비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여 콘텐츠 개발에 반영해야 함.

이데올로기나 정권적 차원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동포들은 경색된 남북 당국 간 대화 및 주민들 간의 화해를 주선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함.

해외동포들은 거주국의 정책결정자를 비롯하여 현지 언론등과 접촉을 통해 바람직한 대북정책, 통일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과 같이 주변국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함.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그 추진 배경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포함해야 함. 또한 각 지역의 동포사회가 역사와 구성원들의 배경 그리고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중요함.⁴⁾

3. 통일교육전문가 심화교육

가. 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 학교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 남북한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콘텐츠를 개발함. 또한 학교교육현장에서 활용

4) 유호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북한연구학회소식』 제11호 (북한연구학회, 1999), p.8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및 기법체득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함.

- 교육내용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위주로 하며,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편성해야 함.
- 교육대상은 도덕·사회과 담당교사 및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며 비사회 교사 및 초·등교사에게도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국민들에게 올바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 현실과 통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로 구성해야 함.

■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의 주요 콘텐츠

- 주요내용은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현안문제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최근 북한의 변화양상과 향후 전망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나. 남북교류사업 담당자 과정

■ 정부 및 기업, 민간단체 담당자 교육

- 통일업무를 주관하는 통일부 외에 행정부처, 관공서, 남북경협기업, 남북교류 민간단체 담당자 및 민간 등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 사업을 하는 주체들에게 심도있는 통일교육을 제공함.
- 통일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접촉한 정보를 피드백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



종합 및 제언

V

과거의 통일교육 방법은 한국사회와 북한사회를 견주는 상호비교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음. 예컨대 반공교육은 북한의 전체적인 부정과 한국의 전체적인 긍정이라는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파괴적 적대의식을 고취시켜 여기에 이해와 화해, 협력과 포용, 공존과 통합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여지가 없었음. 따라서 반공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가능조건을 만들어주며,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아니었음. 또한 통일안보교육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유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과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런 교육은 일종의 소극적 교육이었음.

물론 이러한 유형의 교육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대북 우위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남한체제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나,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기준에 의해 비교될 때 문화의 다양성이나 상대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음. 실제로 한국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북한사회를 연구하는 경우 북한사회는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사회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등한 사회로 묘사될 가능성이 있음.

문화적 상호주의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상대사회의 이질적 문화구조 사이에서 두 문화의 상호작용 영역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갖는 사람들을 말함. 이 유형의 사람들은 두 사회 사이에서 사회 문화적 유동성을 성취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장애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극복해야 함.

통일교육은 곧 문화적 상호주의자로서의 능력 함양을 지향해야 함. 즉 통일교육은 우리 국민이 북한문화가 우리 문화와 상이함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주민 혹은 사회를 현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다원적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한국주민들이 북한사회의 가치나 기준을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의 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이제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 함. 즉 도덕과는 물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론이고 국어과, 국사과, 일반사회, 지리, 음악, 예술 등을 통해 전 교과에 통일교육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임. 특히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관 정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및 과외활동을 통한 다양한 통일교육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현 단계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대학을 적극 활용하고, 구청 단위의 문화교실과 주부교실을 활용해야 함. 또한 강사 섭외와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의 협조와 전문성을 한시적으로 적극 활용하며, 지역단위의 통일교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대적인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를 통일교육의 지역 센터로 활용할 수 있음.

사회통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고 효율적인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을 조직해야 함. 특히 실질적인 사회통일교육은 각 영역에서 담당하는 아웃소싱 방식을 채택하여, 통일교육 중심(center)과 사회통일교육 영역이 종횡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도록 해야 함.

통일교육은 주로 남북관계에 한정되어 국제적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된 남과 북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통일내용도 남북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시키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통일과 북한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를 통일교육에 포함 시킴으로써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사고의 확장을 이끌어내어야 함.

통일교육은 적극적인 평화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함. 북한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남북관계 인식, 대북화해협력정책 등에 대해 교육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이해 차원에 머무는 통일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미래와 적극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담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개발·확대하여야 함.

통일교육 콘텐츠의 내용은 정치경제적 교류와 협력, 군사적 긴장의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과 공존을 통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공존을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 평화·관용·인권·복지 등의 보편개념을 담고 있는 적극적 평화 의식으로 통

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완시킨다면 지역문제의 극복, 생태계 보전 등의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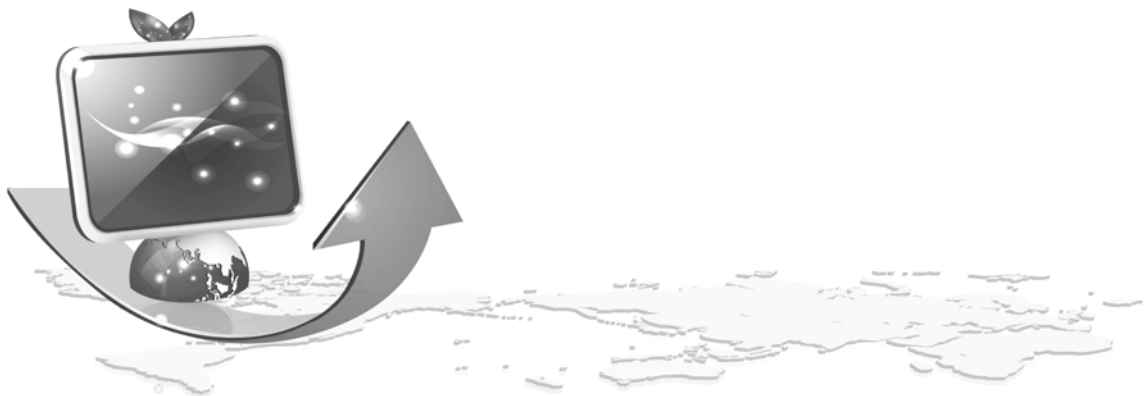
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콘텐츠의 내용은 주로 지식 전달 위주로 구성되어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을 위한 계기로 전화시키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학습을 위주로 하는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가치개발을 위한 통일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의 콘텐츠로는 부족하고 교사와 교육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학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학습을 유도하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



통일교육 콘텐츠 분석 및 제언

오 한 샘
(EBS 플랫폼운영부 부장)





현재 지상파 통일프로그램 분석

1. KBS남북의창(KBS1TV방송일시 매주 토 오전 7시 50분/시간-30분) 프로그램구성안

코너명	주요내용	아이템예
주간뉴스	• 남북관계와 북한과 관련된 한 주간의 주요뉴스 제공	• 북,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제정 /북.중 정상 6자 회담 재개 일치
코너명	주요내용	아이템예
이슈 & 한반도	• 남북간 주요이슈가 되는 현장과 배경을 소개하고 분석	• 북, 남북 비밀접촉 공개 파장/남북 협력 지자체가 나섰다
코너명	주요내용	아이템예
요즘 북한은	• 조선중앙 TV를 통해 북한의 근황을 알아봄	• 북한 어린이날 통나무 뗏목
코너명	주요내용	아이템예
클로즈업 북한	•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 보는 코너	• 김정일 방중 성과는? /특별열차 고집 왜?
코너명	주요내용	아이템예
북한영상	• 주로 북한의 공연을 소개	• 타프춤-탭 댄스, 청춘시절 /인형 춤 춤추며 노래 부르자

2. MBC통일전망대(MBCTV방송일시-월13시5분/40분)

코너명	주요내용	아이템예
지난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주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 소개 	
전망대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를 둘러싼 이슈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중국 방문 /북한에도 특목고와 사교육
전망대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중앙 TV 등을 통해 북한의 최근 상황을 알아보는 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은 공사중 / 이상화 본격화
통일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터민들의 건강한 삶의 현장과 그 적응기를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사의 국수집/ 탈북 청소년들의 배움터 -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가다
남남북녀의 통통 북한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북한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시장 / 놀이동산
북한 영화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를 통해 북한의 정책과 사회 상황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의 거울 / 산촌에 피는 노을
북한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금아 올려라 	



기존 방송 콘텐츠에 대한 평가



구성형태에서 좀 더
다양해진 종합구성의
방식을 도입, 현장 취재
및 관련자 인터뷰, 북한
영상 활용 등 과거에
비해 많은 노력이 돋보임.

하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전달
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 있음.

둘

또한 출연자 선정에
있어 주로 전문가와
새터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 다소 부족

셋

아이템 선정에 있어
전문가의 시선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접근하고 구성할 수
있는 보다 연성화된
제작양식이 필요함.



새로운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언

다양한 아카이브
활용한 OSMU
방식의 콘텐츠 제작

기존 방영된 각 방송사의 통일 및 북한관련 유관 프로그램을 최대한 확보, 이를 카테고리화 및 아카이브화 함으로써 이들 영상물을 SOURCE로 한 다양한 영역의 아이템을 재가공하여 콘텐츠를 개발한다.

자료 및 아카이브의 확보는 프로그램 제작의 가장 중요한 원천 소스일뿐 아니라 그 활용 정도에 따라 제작 프로그램의 경비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시청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각각의 방송주체들이 제공하는 통일관련 프로들을 개별적으로 접해 왔으나 통일 방송과 같은 하나의 통합된 채널에서 1980년 이후 방영된 근 30년 간의 국내 공중파, 케이블 채널의 정규, 특집 프로그램 등을 일관된 주제에 의한 콘텐츠로 선보일 경우, 인접 아이템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가능
프로그램 예시

KBS 여의도 광장
이산가족 찾기 및
금강산 면회소
이산가족 찾기

이 경우 콘텐츠 앞 뒤에 해설자 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반향을 소개함으로써 신세대들에게는 분단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성세대들은 통일의 절실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

남북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활용

영화나 연극, 기타공연 장르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통일관련 소재가 주는 딱딱하고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제작된 남북한의 콘텐츠를 확보, 영화나 공연의 배경이 되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남북한 문화의 차이점과 생활관습 등을 유추해 냄으로써 교육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자료의 역할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활용가능
프로그램 예시

남북한 영화
동시비교: 춘향전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각각의 다른 영화를 통해 남북한의 문화와 예절, 언어 및 의식주의 차이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각각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시도한다.

역사나 전설을
소재로 한 북한영화:
살아있는 영혼들

북한판 타이타닉이라고 불리며 전주영화제 때 소개되어 화제가 된 일제말 징용자들의 운송을 맡았던 함선의 원인모를 침몰사건을 다룬 살아있는 영혼'의 영화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구성함으로써 북한역사관의 이면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남북한 역사관의 차이와 특징을 분석해본다.

북한공연: 왕재산
무용단 및 민속공연단,
노래자랑대회 등

북한의 공연을 통해 북한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알아보고 문화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돕는다.



청소년 특집 기획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감안, 보다 연성화된 아이템을 주제로 장기 미니다큐 시리즈물이나 구성물을 기획한다.

활용가능 프로그램 예시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일본의 민단체열과 총련계열, 중국의 조선족 학교 및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또는 다른 공동행사로 바꿀 수 있음), 일본의 민단과 총련, 중국의 연변 조선족 학교 및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뤄 참여하는 경연(또는 운동회) 과정을 다큐로 잔잔하게 담아낸다. 참여한 아이들의 태도 및 시각 변화과정을 통하여 미래 통일에 대한 단초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는다. 참여초기의 준비과정부터 경연 당일 및 후일담까지 기획특집 미니 다큐 시리즈 물로 활용 가능하다.

같은 나라 다른 교과서

남북한 어린이들의 교과서 비교 및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가 갖는 가치와 영향력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알아본다. 본 프로그램은 각각의 개별 교과에 따라 학년별,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구성과 접근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그 한 예로, 학자나 언론인 등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토론 형태를 참여자들의 구성만 바꾸어도 또 다른 시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창출 가능하다.

활용가능 프로그램 예시

토론 프로의 경우

- 1) 학자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구성(가장 일반적)
- 2) 청소년(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
- 3)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
- 4)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토론 프로그램이 구성가능하며 각각의 참여 연령대에 따라 흥미로운 시각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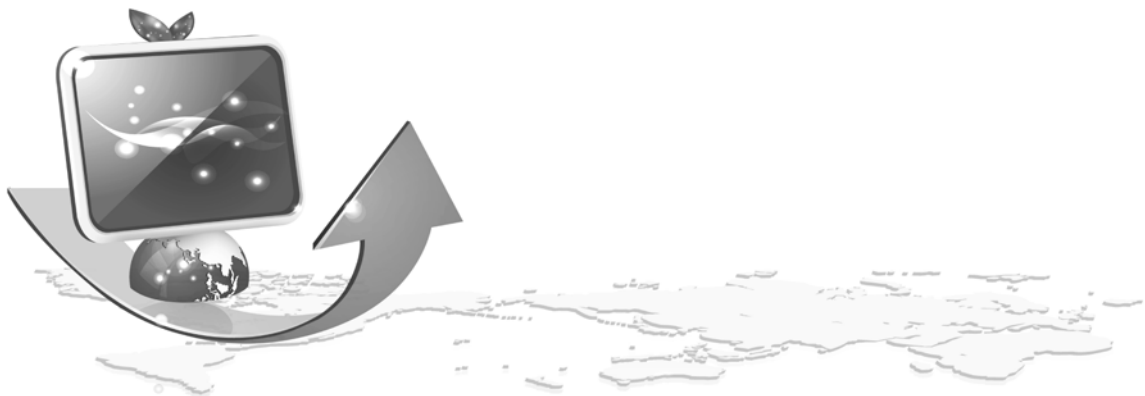


토론내용 요약 자료

박 찬 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이 태 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 흥 재 (前 통일교육원장)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1

박찬석(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우리가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까? 그것은 그들의 통일 이념, 목적, 내용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기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능성에 기인하여 우리는 통일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우월성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우리가 갖는 통일의 논의도 북한의 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의 길에는 남과 북이 멀어져 있으면서, 자기변명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의 콘텐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발표는 매우 뜻 깊은 내용이다. 통일교육 콘텐츠의 중요성 인식을 통일의 대중화에 힘쓰시고 철저한 통일 인식에 기초하신 오한샘 부장님과 통일 및 북한 전문가이신 박현선 교수님을 통해 파악하게 되었다. 이 두 분이 주장하는 통일교육은 우리가 북한에게 과히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며, 우리에게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알맞게 파악하게 하는 인식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1. 오한샘 EBS부장 발표에 대한 단상

전문적으로 발표 내용에서 흐르는 통일을 생각하는 오한샘 선생님의 입장은 우리의 통일 방송을 보다 일반화하면서 목적 지향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동안 수없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진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진화에 한 축에서 오 부장님이 계셨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통일교육 방송이 북한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한 입장이 더욱 고양되게 하기 위해서 오한샘 선생님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다양한 사람들의 방송 그리고 보다 연성화된 제작 양식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의 통일 담론에 대해 정부나 사회가 보다 유연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분명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경직하게 이해하는 정부를 만나면 매우 한정적이고 주제가 뻘한 지루한 통일방송이 전개되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한시도 잊을 수 없는 6·25도 있지만 6·15도 있다. 이 양자에 대한 통일 담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통일 방송이 내용을 더 이채롭고 뚜렷하게 갖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방송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6·25로 대표되는 호국적 통일관이나 안보적 통일관을 주창한다면 북한은 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6·15로 상징되는 남북 화해와 협력적 통일관을 강조하면 북한은 동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커다란 울타리를 방송이 통일이라는 주제로 설정하는 그 시간 이후 진정한 통일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2000년대 후반기 이래로 남과 북은 매우 거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향성을 보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통일 방송이기를 바란다. 그러한 방향 전환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나은 통일 지향을 의미 있게 진척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토론자로서 본 발표에 탄지를 건다면 다음의 내용이다.

오 부장님은 내용보다 방법이 중시된다고 하셨다. 그것은 2000년 이후 근 10년간 통일교육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강조된 통일교육의 생각들이다. 그러나 방법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지속력을 갖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중요하다. 내용에 대한 자유스러운 방향 지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법을 추구한다면 결국 북한이나 국내외 다양한 세력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통일, 자기만의 통일에 도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북한의 침략이나 통일전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에게도 통일은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늘 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통일은 두려운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힐 수 있는 방송이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단언하건대 내용은 방법을 자유롭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2. 박현선 고려대학교수 발표에 대한 단상

박현선 교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정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엄숙한 이념이며 의무” 이라고 밝히셨다. 통일교육은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북한을 하나의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한다. 그러한 알림을 기초로 통일교육 콘텐츠의 주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통일교육 콘텐츠는 박 교수님이 분석하신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내용을 보면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 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에 입각한 5개 주제이다. 이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려고 대자적인 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담대함은 더욱 커져야 한다.

또한 박교수님은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목표를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의 전·후를 대비함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통일 전이기에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통일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는 불투명한 남북한 관계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진행에서 “통일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첫 걸음이라는 의의를 가짐” 으로 박교수님은 단언하였다. 진정성을 갖는 통일교육은 매우 협소한 좁은문이다. 그렇지만 통일을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통일교육이 되려면 좁은 문을 가도록 모험심을 길러주는 콘텐츠를 국민 성원, 정부가 약속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약속속에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정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은 너무도 추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통해 차츰 차츰 통일의 길을 가리라고 생각한다.

박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통일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① 관심 갖기 초급용, ② 본 공부 중급용, ③ 심화 공부 전문가용 등과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통일교육 콘텐츠의 내용은 통일문제로 통일미래 준비, 보편적 가치의 지향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의 지향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역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문제를 노정한다. 지나치게 보편적 인권 기준, 보편적인 삶의 기준에 입각하여 북한을 바라본다면 북한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당위는 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좀처럼 어려운 통일의 길을 더 어렵게 하려는 의도를 우리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교육대상별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접근이다. 유아 통일교육, 초·중·고등학생 통일교육, 대학 통일교육, 성인 통일교육에서 진척하여야 할 것은 진정하게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통일교육 방향의 내용을 담게 해준다면,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이 성숙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연령대에 맞는 이야기 말하기, 강의, 토론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계층인 여성, 노년,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다문화 가정 및 해외동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는 내용을 중심으로 꾸려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도 없이 새로운 인식 전환은 매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이 갖는 통일관과 북한관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그들의 사고가 복합적인 통일 문제에 대해 양자 복합적 내용을 강화하는 데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반공교육을 벗어나는 안보교육이 되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은 안보교육=반공교육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 분명히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한 부분이다. 반공교육으로 통일은 극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님은 “반공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가능조건을 만들어주며,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아니었음. 또한 통일안보교육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유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과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런 교육은 일종의 소극적 교육이었음” 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의 대업에 있어서의 진척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통일교육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적인 위상으로 승화되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박 교수님께 여쭙고 싶다.

분명 안보교육은 반공 교육으로 되어서는 통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셨다. 그러나 안보교육의 내용이 북한에 대해 문제점을 따지고 사과 받을 것은 사과 받는 교육이며,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는 교육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안보교육은 북한이해교육내지 북한인식교육과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를 묻고 싶다.

3. 본 토론을 가름하면서

거듭 주장하지만 통일교육의 콘텐츠는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고 통일의 대상이다.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통일교육은 북한을 경계하지만 북한의 끝사나운 짓을 더 대자적으로 파악하고 염려하면서 북한을 통일의 길로 가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통일교육 콘텐츠는 경계와 통일 이 양자의 틀을 잘 적절하게 인식시켜야 콘텐츠 개발의 품격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콘텐츠를 통한 참여 학습자들이 진정한 통일 일군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투에서 희생된 호국 영령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남과 북을 원할 것이다. 그러한 숭고한 뜻을 잘 파악하여 오 부장님이 예시한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에서 밝혔듯이 일본의 민단체열과 총련계열, 중국의 조선족 학교 및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의 취지” 처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박 교수님이 주장하였듯이 “통일교육은 주로 남북 및 국제적 차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적극적인 평화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함” 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콘텐츠의 내용은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을 위한 계기로 전회시켜야 하며, 참여학습을 위주로 하는 콘텐츠 개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분명 통일의 헤게모니가 대한민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대자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북한이 외치는 통일의 공허함과 같이 우리의 통일교육도 북한 주민에게 현실성 없이 우리가 외치는 꼴이 될 것이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2

이태욱(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오한샘 EBS부장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기존의 지상파 통일 프로그램(KBS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방송의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코너명, 주요내용, 아이템의 예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가 된 점이 돋보인다. 단, 각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특징, 장점, 반향점, 보완점 등을 추가하여 평가를 제시한다면 콘텐츠에 대한 평가로서 보다 우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발표자는 기존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출연자 선정에 있어 주로 전문가와 새터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 셋째, 아이템 선정에 있어 전문가의 시선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접근하고 구성할 수 있는 보다 연성화된 제작양식이 필요하다.

위의 제시를 분석해 볼 때 전문가의 입장도 좋지만, 일반인에 비춰진 모습 즉, 대상에 따른 다른 관점을 제시해야 됨을 부각시켰고, 보다 개방된, 눈높이에 맞춘 제작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감안, 보다 연성화된 아이টে을 주제로 한 장기 미니다큐 시리즈물은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의도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고등학생), 교육현장 교사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 등은 흥미로운 시각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과와 반향을 가져올 수 있는 구성 및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무엇(what)보다는 어떻게(how)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언에서 제시한 내용’ 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다양한 아카이브를 활용한 OSMU방식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아이টে을 재가공 사용으로 인한 경비 절감측면, 남북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등 방법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특집 기획을 어떻게 제작하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통일 콘텐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제안에서 제시된 일본 민단체열, 총련체열, 중국의 조선족,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 등을 다큐 형식으로 제시한다면 미래 통일에 대한 단초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을 뿐 아니라, 새롭게 시도되는 형식이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신비감 및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매일 지참하면서 활용하는 교과서의 남북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박현선 고려대학교 교수

교육대상별 적합한 콘텐츠 개발 방향을 분석해 볼 때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본방향(목표, 원칙,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잘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대상별(연령별, 계층별)로 차이를 두어 각계 각층 및 소외 계층도 통일 교육의 범주에 두는 세심한 면이 인상 깊었으며 각 계층에 따른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방향 제시를 분리하여 교육하되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보다 결속시키는 통일의 형태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연구자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제시한 내용에서 콘텐츠 개발의 원칙이 가장 핵심사항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특히 세부적으로 콘텐츠 개발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첫째,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전제로 갈라진 체제를 통합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로 본 것은 미래지향적인 통일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원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전후의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콘텐츠 개발에 투영시킨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둘째, 실용성을 중시하는 콘텐츠 개발의 원칙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통일교육의 시간적인 면을 고려할 때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여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도에 매우 공감한다. 더불어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통일교육의 진척을 위해 시간별, 난이도별, 교육주체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다음은 통일교육 콘텐츠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서는 연령별 차별화 교육(유아, 초중등생, 고등학생, 대학생), 통일교육 소외계층 집중교육(여성, 노년층), 특수계층 다문화적 접근교육(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와 부모, 해외동포), 통일교육전문가 심화교육(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남북교류사업 담당자 과정)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소외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별로의 세부화된 콘텐츠 구성 방향은 연구자의 가장 주된 특징이자 장점이다. 또한 각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추구하는 이상과 삶의 방식이 달라 이를 고려해야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은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별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제대로 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지, 또한 다양한 계층별로 제작할 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 특징적인 스토리 보드 구성이 필요한데 제한된 조건 안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각 계층별로 나누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통일 교육의 핵심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각 계층에게 동일하게 반영되어 공통적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인 결과로 드러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콘텐츠의 형식이다.

첫째, 학교교육형식에 관한 제고이다. 현재 사회과와 도덕과 일부에서 포함되어 실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일교육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는 연구자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보다 체계적인 계획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진로활동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사회와 도덕에 국한된 통일교육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둘째, 지식전달 교육에서 참여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IT나 웹 2.0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여자 중심의 위키피디아, 소셜네트워크 등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참여자가 중심이 된 트렌드가 현실 세계에서도 통용된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육도 그러한 현상에 발맞추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콘텐츠 개발의 방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통일 교육을 하는 전달자(교사)도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 사고의 다양화, 문제의 해결능력, 의사소통의 방법 배양 등 다양한 능력이 개발에 힘쓸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은 비단 통일 교육만은 아닐 듯 하다.

셋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방향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면 가장 먼저 학생들이 하는 말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쉽고 거부감 없이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제시한 예시(내가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편견 고백하여 마음 열기, 대동강에서 사진 찍기, 평양냉면으로 점심 식사하기, 유적지 돌아보기, 평양생활과 서울생활)는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전달의 방식을 벗어나 통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하여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는 좋은 소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강한 비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기존 교과과정에 통일교육의 내용을 담는 형식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는 여러 개의 과목의 합쳐진 교과군이 제시된다. 또한 특정영

역(가령 녹색성장교육)을 특정과목(과학)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과, 도덕, 사회, 국어,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융합하여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도 다양한 교과목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접근을 한다면 보다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로 다가설 것이다.

다섯째, 방송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이다.

사실상, 현재 제작된 통일 교육 콘텐츠는 방대하다. 단지 그것을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IPTV를 통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에 맞는 또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감각적인 통일 교육 콘텐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중심의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기 때문에 최근 통일교육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북한사회의 실상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활용은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연구자의 결과는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콘텐츠의 제작이 기대된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3

김홍재(前 통일교육원장)

1. 박현선 교수 발표에 대한 의견

박현선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보면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방향에 대해서 기본방향, 내용, 형식, 연령별 계층별 차별화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총망라하여 정리해 주셔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교과서 또는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배울 점이 많았다

기본방향에서 목표 및 통일교육의 정의를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 남북 평화정착 등에 중심을 둔 것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또 부정적통일관 확산, 통일에 관한 무관심 증대, 한반도 정세의 불안한 미래 등을 지적하면서 미래지향적, 객관적, 단계적, 실용적 개념에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대상별, 단계별, 교육 주체별로 강조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에 동의한다.

교육 대상별 콘텐츠 개발(연령별 차별화 교육)에 있어서는 유아기 교육이 성인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교육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초·중등 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전에 비해 30% 정도나 통일교육의 양이 감축됨으로 인한 피해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자유평등 등의 내용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통일접근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 우리의 통일정책 등에 주안을 두어 통일에 대한 실천적 자세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됨을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대학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에 비해 과목들이 북한정치나 체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학통일 교육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통일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교육을 보강해야 되며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주입식이 아니라 실천적 훈련, 탐구식 수업, 대화, 토론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마땅한 지적을 해주었다.

제3주제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사회통일교육은 비제도적 교육인지라 제도권내의 일부가 아니면 자발적 기회가 많지 않은 문제가 있기에 한계가 있지만 집단간 세대간 차이를 통합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점은 통일교육원이 지원하고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에 새로 시작한 통일교육전문강사반 과정 개설이 전문가 양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층별 차별화교육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실정과 정보를 활용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에도 분단-다문화 시대에서 통일-다문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폭넓은 영역에까지 통일교육과 그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는 점을 잘 설명하였다.

2. EBS 오한샘 부장 발표에 대한 의견

EBS는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자극을 주었던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시도 등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통일문제, 남북문제처럼 딱딱하고 지루한 아젠다를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좋은 기억을 남겨 주었고 심각성을 건전성과 공감성으로 변환시켜서 시청자들이 쉽게 참여하고 싶도록 만들고 북한 문제를 공동체의식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었던 좋은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방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카이브 확보, 통일방송, 문화예술 분야 활용, 남북한 동일 영화 비교, 북한공연을 통한 사회상 이해, 한중일 한국어린이 운동회, 남북 교과서 비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안하였고 이런 방안들이 방송현장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KBS '남북의 창'과 MBC '통일전망대'를 소개하면서 2개의 프로그램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다만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영상자료 등 프로그램 소스 확보가 쉽지 않고 다양하지 않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또한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자료를 많이 이용하게되어 사실보다 다소 과장된 전달이 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 또 방송 시간대가 주요 시간대가 아님으로 인해 국민에 대한 폭넓은 간접교육의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안타까움도 갖게된다.

3. 기타 의견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를 위해 준비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유치원부터 사회통일교육 까지 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해외동포까지 연령과 계층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과 긴급성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함께 생각할 점도 있는 것 같다.

우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시각이 계층별 연령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지나간 정부 10년 동안과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상황이 크게 다르듯이 각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책과 입장으로 인해 통일교육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당시 정부의 정책에 맞는 통일교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국민들도 인식을 바꿔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 속도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를 수정 보완하는 일이 간단치가 않다. 교육 콘텐츠를 새로 기획하고 완성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교과서의 경우)소요된다고 보면 간단하고 긴급하게 만드는 홍보자료를 제외하고는 시간적 적시성을 놓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책자의 경우 완성하고나서 바로 수정을 해야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런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만들어야하는 통일교육의 콘텐츠는 통일국가의 비전과 민족공동체 형성의 당위성, 북한에 대한 현실 인식, 통일과정에서 감수해야할 일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 분모적 내용에 무게를 두고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관심시대, 스마트시대 엔터테인먼트 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달방식에서 첨단방식을 과감하게 활용하여 사실상의 통일세대인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 교육원이 20여억원을 들여 IPTV를 활용한 학년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은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통일부 통일교육원